227
18

이슬람

-원리와 개론-

무함마드 A. 수하임 교수 지음
최 영 길 옮김

The Cooperative Office For Call & Guidance At Al-Badiah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Islamic Affairs Endowment Guidance & Propagation
P.O.Box 24932 Riyadh 11456 - Tel 4330888 - Fax 4301122 www.islammessage.com

(باللغة الكورية)

이 슬 람

-원리와 개론-

فهرسة مكتبة الملك فهد الوطنية أثناء النشر

السحيم، محمد بن عبدالله

الإسلام أصوله ومبادئه./ محمد بن عبدالله السحيم.- الرياض، ١٤٢٩هـ

٢٤٨ ص؛ ١٤×٢١ سم

ردمك: ٢ - ٠٠ - ٨٠٢١ - ٦٠٣ - ٩٧٨

(الكتاب باللغة الكورية)

١- الإسلام - مبادئ عامة أ- العنوان

ديوي ٢١١ ١٤٢٩/٢٥٨٢

رقم الإيداع: ١٤٢٩/٢٥٨٢

ردمك: ٢ - ٠٠ - ٨٠٢١ - ٦٠٣ - ٩٧٨

الطبعة الأولى

١٤٢٩هـ

المكتب التعاوني للدعوة والارشاد وتوعية الجاليات بالبديعة

ص.ب : ٢٤٩٣٢ - الرياض : ١١٤٥٦ - هاتف : ٤٣٣٠٨٨٨ فاكس : ٤٣٠١١٢٢

227
18

이 슬 람

-원리와 개론-

무함마드 A. 수하임 교수 지음
최 영 길 옮김

The Cooperative Office For Call & Guidance At Al-Badiah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Islamic Affairs Endowment Guidance & Propagation
P.O.Box 24932 Riyadh 11456 - Tel 4330888 - Fax 4301122 www.islammessage.com

목 차

역자 서문

이슬람력 1426년 12월 20일자로 작성된 편지 한 장이 팩스로 들어왔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소재 사우드 왕립대학교(King Saud University) 사범대학 교수 무함마드 A. 수하임 박사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슬람에 관심이 있는 비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저술한 「Islam; Its Foundation & Concepts」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어 번역의 가능성 여부를 물어왔으며 번역 및 출간을 허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틀 후 22일자로 두 번째 팩스 서한이 들어왔다. 저자가 본서를 저술하게 된 동기와 특히 본서의 한국어 번역과 더불어 출간을 희망하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저자가 사우디 아라비아 이슬람부처 산하 출판행정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한국의 S. 대학교 Lee 교수가 이슬람부처를 방문하여 비무슬림을 위한 이슬람 소개 책자를 원했었는데 한국인 교수가 희망하는 책자를 제공하지 못해 입장이 난처했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요구가 있어 본서를 저술하게 되었다고 했다. 저자의 책은 이슬람력 1427년 1월 11일자로 역자의 연구소에 도착했다.

역자는 2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Muhammad in

the Bible」 이란 책의 번역을 제의받고 번역을 완료한 적이 있었으며, 8년 전에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Ar-Raheeq Al-Makhtoom」 이란 책의 번역을 제의받고 번역을 완료하여 보낸 적이 있었다. 후자의 책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출간이 되었고 전자의 번역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출간되지 않고 있다. 혹시 본서의 번역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지만 저자가 본서를 저술하게 된 동기(動機)가 역자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다. 본서가 담고 있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한국인에게 소개할 이슬람 책자가 필요하다는 한국인 교수의 제의에 의해 저술된 책이었기 때문이다.

저자와 역자의 노력이 본서의 집필과 번역 동기를 제공한 분의 기대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이슬람과 이슬람문화에 관심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자와 역자의 보람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하여 준 The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s, 고용팔 사장님 그리고 LG 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최성진님께 감사드리며 한글 오자를 교정하느라 수고한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김홍수군에게 본서의 지면을 통해서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10일

최 영 길

머리말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당신의 사도에게 보내주신 알라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희를 무함마드의 추종자가 되게 하여주신 알라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희에게 복음을 주사 그것을 준수하고 그 길로 초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알라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알라 하나님 당신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신에게 비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당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하늘과 우주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한 자도 그리고 방탕한 자도 모두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모든 지성인들과 식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공정성과 은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이 원하는 자를 당신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공정성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당신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십니다.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분의 사도이며, 그는 그분을 위해 일생을 바치면서 고심 분투하였으며, 참고 인내하였다. 골목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초대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구원을 받으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시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한 없는 위대한 품성을 주셨다.

그의 규범이 부활의 날까지 남아 있도록 하셨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깃발을 전수하여 이 땅에 꽂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가치를 전하도록 하셨다. 그들중에 진리의 길을 따라 성공한 자들이 있다. 그의 규범을 저버리거나 거역한 자들이 그의 초청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다. 성공한 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일러 가로되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분명한 통찰력으로 알라 하나님을 부르니라.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는 사신들과 알라 하나님을 혼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1)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인간에게 파멸과 멸망을 경고하면서 알라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으라고 하였다. 알라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후에 와서는 그 계약을 팽개친 성서의 백성들을 닮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성서를 받은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 했거늘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추고 하찮은 것과 교환하여 버렸으니 그들이 팔아버린 것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2)

이슬람 서적들을 출간하여 보급하고 번역하는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소개

---

1) (12:108)

2) (3:187)

할 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슬람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많다. 개요서도 많고 상설서도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무슬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로 엮어진 책들이 아니다. 일부는 비무슬림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슬림들만을 위한 책들이고, 일부는 예배생활에 관한 사항들만 상세히 다루고 있어 비무슬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책들이고, 또 일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의사항을 총괄하는 책들이다.

본인은 오래 전부터 이 점에 관심을 두었다. 이슬람부처 소속 출판 대행부서에서도 그러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저자들과 의논해보았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에게도 제의해 보았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장애물이 많은 죄를 낳고 불가시계의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의 권리를 소홀히 하였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이슬람교에 입교한 새로운 무슬림이, 때로는 각 국가 이슬람 센타에서 그 지역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적합한 책을 추천하여 주면 그 지역 언어로 번역을 하겠다는 편지를 종종 받기도 했다.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지만 그런 책을 찾지 못했다. 알라 하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요약서 한권 발견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후 필자는 미루는 것이 만사가 아니며, 없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다. 무관심이 핑계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알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비록 임시방편이 되더라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책 저술이 성공을 거두도록 하여달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의 일부분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원

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 이후의 사람들이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리고 씨를 심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물을 주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에서 필자는 이슬람의 요점을 소개하면서 이슬람의 핵심과 중요한 기본원리에 역점을 두고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초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과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사도가 무아즈를 예멘으로 파견하면서 그에게 남긴 말씀과 같은 언행록(Hadith)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당신은 성서의 백성들에게로 파견되는 것이요. 그들에게 알라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언하도록 권장하시오.

만일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매일 밤낮으로 다섯 차례 예배를 의무화하셨다고 가르치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거든 알라 하나님께서 부자들로부터 자선금을 취해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의무화하셨다고 가르치시오.〕 3)

우마르(Umar ibn Al-Khattab)의 전언에도 근거하였다.

"어느 날 알라 하나님의 사도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새하얀 옷을 입고 새까만 머리에 여행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예언자 옆에 앉았다. 그의 무릎을 예언자의 무릎과 맞대고 그의 손은 예언자의 허벅지에 얹고서 질문을 하였다.

무함마드여, 이슬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3) Al-Bukhari fi Kitab Al-Zakah, Chapter 41; Muslim fi Kitab Al-Iman, Hadith 29.

이에 알라 하나님의 사도가 대답했다.

'이슬람이란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임을 고백한 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합니다.'

그러자 질문자가 이렇게 말했다.

'바르게 말했소.'

우리는 그가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고서 예언자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하여 바르게 말했다고 말한 그가 수상스러웠다.

그가 또 질문을 하였다.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언자가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종말과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했다.

'바르게 말했소. 신앙에 관하여 말해주시오.'

다시 예언자가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당신이 직접 그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이번에는 종말에 관하여 질문을 했고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내가 질문을 한 당신보다 더 알지 못합니다.'

그런 후 질문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나는 잠시 머물러 있었다.

이때 예언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마르, 질문했던 그를 알고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만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다시 말했다.

여러분을 찾아 이슬람을 가르쳐 준 실체는 가브리엘 천사였소." 4)

이 두 언행록에서 예언자는 믿음과 이슬람 그리고 신앙의 근본원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무아즈 이름이 언급한 첫 번째 언행록에는 단식과 성지순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학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겠다.

교리 부분을 다룰 때에는 꾸란 절을 인용하여 증거를 제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만약 우상숭배자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그대에게 보호를 구한다면 그를 보호할 것이요 그로 하여금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이라…】 5)

독자들로 하여금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꾸란을 청취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듣는 자의 머리를 매혹시키고 마음을 유혹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꾸란을 읽어보고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독자들에게 의문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가능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일부 유사한 교리문제의 반복 언급을 피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풀어줄 증거와 근본 원리만을 언급한 것으로 만족했다.

4) Muslim fi Kitab Al-Iman, Hadith 8.

5) (9:6)

꼭 필요한 근거만을 제시하여 책의 부피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장과 절 그리고 책의 무게까지 신경을 썼다.

본서는 허약하고 부족하며 실수하는 속성을 갖고 태어난 한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 틀린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알라 하나님의 덕분이다. 이 노력이 알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그분께서 이 노력을 받아주기를 바랄뿐이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자의 잘못이요 사탄의 짓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이시여, 본서에 오류가 있다면 바른 것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독자를 방황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바른 길로 안내하여주소서.

머리말을 끝내면서 본서가 출간되고 번역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알라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가 보람된 일이 되고 유익한 지식을 전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온 누리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무함마드와 그의 가문과 교우들 모두의 명복을 기도합니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이븐 살레 수하임
사서함: P. O. Box 1032 Riyadh 1342

서 문

모든 영광은 알라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분에게 그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구원을 간구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죄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죄에 대하여 알라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안내를 받은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며 당신이 버린 자는 안내자가 없습니다. 당신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견줄 자 아무도 없으며 무함마드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사도라는 것을 저는 선서합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온 누리에 그분의 사도들을 보내시어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알라 하나님에 거역하는 어떤 핑계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서들을 보내시어 안내서가 되고, 자비가 되고, 빛이 되고, 치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각 민족들에게 그들의 사도들이 파견되었고 그들의 성서들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들은 사라졌으며 율법은 왜곡되고 변조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기간에 특정 민족에게만 내려진 성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알라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를 택하신 후 그를 최후의 예언자이자 최후의 사도로 두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너희 남성들 중에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라. 알라 하나님의 사도요 최후의 예언자라…】[6)]

그리고 위대한 꾸란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성서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꾸란의 보존을 당신의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실로 내가 꾸란을 계시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존할 것이라.】[7)]

그리고 꾸란의 법이 믿음의 부분이 되고, 사람들을 그 법으로 초대하고 그것으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 부활의 그날까지 그것을 존속하도록 하셨습니다. 무함마드의 길과 그 이후 추종자들의 길이 알라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는 확실한 지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확실한 지식으로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불신자

---

6) (33:40)
이 절은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내리신 위대한 꾸란의 일부입니다. 본서에는 꾸란의 원문이 많이 인용되어 있으며 꾸란 절마다 '지고하신(Taala)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지고하신(Taala) 분께서, 또는 거룩하신(Jalla) 분께서, 또는 찬양을 받을(Subhana)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꾸란에 대한 요약 설명은 본서 113-120쪽 및 134-137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저자 주)
한편 본서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독자의 일관된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의 중복을 피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 통일하였습니다.(역자 주)

7) (15:9)

중에 있지 않습니다.】 8)

알라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는 길에서 있을 곤경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의지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그랬듯이 그대여 인내하라…】 9)

인내할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인내하라. 인내함에 경쟁하며 단결하라. 그리고 알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10)

이 신성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 꾸란과 무함마드의 전통에 근거하여 알라 하나님으로 초대하는 본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우주 창조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 후 인간 창조와 인간 존중, 인간을 위한 사도들 파견, 이슬람 이전의 종교적 상황을 설명한 다음 이슬람의 의미와 골격을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진리를 원하는 자를 위해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구원을 원하는 자를 위해 길을 보여주었으며,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훌륭한 분들의 뒤를 따르고자 원하는 자를 위해 그 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난 자는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방황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각 종교의 추종자들은 진리가 자신의 종교에만 있다고 선교

8) (12:108)

9) (46:35)

10) (3:200)

를 하고, 어떤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만을 따르고 자신들의 교주만을 추종하며 찬양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자신의 교리를 따르라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알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라.】 11)

무슬림은 어떠한 위인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알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인간을 창조한 주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이 보낸 사도들을 믿으며,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를 통해서 내리신 법을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알라 하나님의 종교로 초대하는 본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안내를 받아 행복을 추구하는 자를 위해 무함마드를 마지막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건데 이 종교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며, 이슬람을 그분의 종교로 믿는 자만이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본질을 알게 되었

---

11) (3:19)

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갈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본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저술이 알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그분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업적의 일부가 되게 하여달라고 알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서의 번역과 출간은 누구에게나 허용됩니다. 다만 번역자의 정직성과 번역의 정확성을 기대하며 번역본 한 권을 저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 번역과 중복된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서 아랍어 본문 또는 번역서에 비평할 부분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저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겉과 속, 공개와 비공개, 처음과 끝이 모두 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과 땅을 채울 정도로,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광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알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과 심판의 그 날까지 그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저 자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이븐 살레 수하임
리야드
이슬람력 1420년 10월 13일

사서함 : P. O. Box 1032 Riyadh 1342
: P. O. Box 6249 Riyadh 11442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은 성장하고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갖게 된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나를 존재하게 하였으며 나 주변의 삼라만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우주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누가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가? 등 그 밖의 다른 의문점들도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며 현대 과학에서조차도 그 질문들에 적합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 잡다한 이야기들과 서로 다른 미신과 우화들이 인간에게 혼돈과 불안을 더하여 주었다. 이처럼 이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기 힘들게 되자 결국 인간은 제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최종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 알라 하나님의 올바른 종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한 올바른 종교와 진리의 말씀만이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불가시계의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종교를 배워 믿게 될 때 인간은 혼돈과 의심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을 알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초대하여 여러분 앞에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증명으로 논증을 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세심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알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일위일체와 신성의 유일성[12)]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사람 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 유대인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사도에게 알라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알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렸다.

【일러 가로되, 알라 하나님은 일위일체의 한 분으로 영원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아니한 분이시며 그분에게 비유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노라.】 13)

【실로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 알라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좇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의 운행을 그분의 권능아래 두시었더라. 진실로 창조되어진 것과 말씀이 그분의 것이니 만유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14)

---

12) 압둘아지즈 빈바스의 저서 「Al-Aqidah Al-Sahihah wa Ma Yadaduha」 책과 무함마드 이븐 살레 알-우싸이미의 저서 「Aqidah Ahl Al-Sunnah wal-Jamaah」 책 참조.

13) (112:1-4)

14) (7:54)

【알라 하나님은 너희가 볼 수 있는 아무런 지주도 없이 하늘을 세우신 분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권자에 오르시어 태양과 달을 지정된 날까지 스스로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노라. 그분께서는 너희가 주님과의 만남을 굳게 믿도록 징표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노라. 그분께서 땅을 펼치시고 그 안에 산을 세우셨으며 강을 흐르게 하사 모든 종류의 열매를 두셨음이라. 그 안에 자웅을 두었고 밤이 낮을 가리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거들이 있노라. 알라 하나님은 모든 암컷이 잉태하는 것과 자궁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초과시키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의 적절한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노라.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며 지고로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 15)

【일러 가로되 천지의 주님이 누구이뇨? 일러 가로되 알라 하나님이라. 일러 가로되 그리하면 그분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유용함도 해악도 없는 사신을 보호자로 택하겠느뇨? 일러 가로되 장님과 보는 자가 같을 수 있으며 암흑과 빛이 같을 수 있느뇨? 또한 그들은 그분의 창조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는 사신들이 있다고 여기느뇨? 일러 가로되 알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그분만이 홀로 전능하심이라.】 16)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증표로서 증거하고 논증하고 있다.

---

15) (13:2, 3, 8, 9)

16) (13:16)

【알라 하나님의 증표 가운데 밤과 낮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노라. 그러므로 태양과 달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가 진실로 알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들을 창조한 그분만을 경배하야 하느니라. 그들이 비웃으며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밤낮으로 주님을 찬미함에 피곤해 하지 않노라. 알라 하나님의 증표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느니라. 그대는 불모의 대지를 보리라. 그러나 알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시니 생명이 싹트고 수확이 증가하지 않느뇨? 실로 대지를 소생시키는 분은 죽은 자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 진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17]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들과 피부색을 달리 창조하셨음도 그분의 증표 중의 하나이며 그 안에는 지식이 있는 자들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밤에는 잠을 자게하고 낮에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양식을 구하게 함도 그분의 증표가운데 하나이거늘 실로 그 안에는 듣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18]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미와 완벽의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노라.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알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뇨?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

---

17) (41:37-39)

18) (30:22-23)

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니라…】 19)

【알라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사 회개함을 받아 주시되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이 엄하니라. 또한 그분은 풍요로운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최후의 목적지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20)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성스러운 분이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수여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권세와 모든 위대함의 소유자이시라. 그들이 비유하는 것들 보다 위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라.】 21)

그분의 종들에게 알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신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종들을 위하여 그 사실에 관한 당신의 증표들을 증거로 확립하셨고 그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다. 당신 스스로를 완벽한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와 주권과 경배 대상자로서 신성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혜와 피조물의 본성이 그와 관련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분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

19) (2:255)

20) (40:3)

21) (59:23)

첫째: 우주 창조와 경이로운 설계

우리 주변에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져 있다.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과 은하수가 있고, 펼쳐진 땅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며 그 식물들은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에는 자웅이 있다. 이 우주는 우연히 또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연히도 그리고 스스로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것을 존재케 한 원인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이로운 설계와 완벽한 조화로 이 우주를 존재케 한 원인자는 무엇일까? 꾸란은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그 원인자는 일위일체의 절대자 알라 하나님으로 그분 외에는 어떠한 창조주도 없고 어떤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뇨?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뇨?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였다 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22)]

이 두 절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그것들은 무(無)에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가?
2. 그것들 자체가 그것들을 만들었는가?
3. 그것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가?

만일 그것들의 존재가 무(無)로부터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들 자체가 그것들을 만들지 아니했으며, 그것들이 하늘과

---

22) (52:35-36)

땅을 창조하지 아니했다면 하늘과 땅을 존재케 하고 그것들을 창조한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조물주가 바로 일위일체의 절대자 알라 하나님인 것이다.

둘째: 본능과 본성

모든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조물주의 존재를 믿으려는 본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물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고귀하며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기초 수학에서보다 자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줄곧 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의 본능이 변태하지 않는 이상[23]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필요하지 않는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종교를 위해 그대의 얼굴을 확고히 하라. 알라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이 종교를 두셨노라. 알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변함이 없나니 그것이 진리의 종교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24]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은 본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배화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부모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이 새끼들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수족이 절단되어 태어난 동물을 보았습니까?〕

이 어록을 전하고 있는 아부 후라이라가 말했다.

---

23) Shaik Al-Islam Ibn Taymiyah, Majmoo Fatawa 1:47-49, 73

24) (30:30)

"여러분이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면 다음의 꾸란 절을 암송하시오." 25)

【…알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변함이 없나니 …】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가르치라 하셨다.

오늘 내가 한 종에게 허락한 모든 재물은 합법적이라. 나는 나의 종 모두가 본능적으로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에 기울이도록 창조하였느니라. 그런데 사탄들이 너희를 찾아와 창조주의 종교로부터 이탈시켜 내가 허용한 것을 금기하고, 내가 아무런 권능도 부여하지 아니한 것들에 나를 비유하도록 하였느니라.〕 26)

셋째: 만인의 일치된 견해

과거와 현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이 우주가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온 누리의 주님이시자 하늘과 땅을 만든 조물주이신 알라 하나님으로 그분의 창조와 주권을 공유할 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알라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다른 사신들이 동참하였다고 믿었던 민족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도 자신들은 물론 그들이 믿었

25) Kitab Al-Qadar of Al-Bukhari, Chapter 3 and Kitab Al-Qadar of Muslim, Hadith 1658; 꾸란 30:30.

26) Imam Ahmad, Musnad, Vol.4, p.162 and Muslim, Kitab Al-Jannah, Hadith 2865.

던 사신들도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는 것을 믿었고, 그분 외에는 어떤 조물주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수여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유익함의 제공자도 그리고 피해를 입히는 힘도 모두 그분에게 있다고 믿었다.[27] 다신론자들도 알라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권을 확신하고 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알라 하나님 이라고 그들은 대답하느니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찌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유혹되어 있느뇨? 알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기도 하고 제한하시기도 하시니라. 실로 알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죽은 대지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뇨 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알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대답하느니라. 일러 가로되 알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더라.】 [28]

【그대가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시뇨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알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대답할 것이니라.】 [29]

넷째: 이성(理性)

인간의 이성도 역시 이 우주는 위대한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

---

27) Shaik Al-Islam Ibn Taymiyah, Majmoo Fatawa 14:380-383.

28) (29:61-63)

29) (43:9)

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전한 이성이 라면 이 우주가 우연히 또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창조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케 한 원인자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인간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비록 그가 줄곧 창조주를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여 달라고 간구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동물도 상처를 당하여 심하게 아플 때는 고개를 위로하고 그의 눈은 하늘로 향한다. 인간은 그가 재앙에 처할 때면 서둘러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재앙이 그에게 이른 후에야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노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면 인간은 그가 구원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세워 알라 하나님의 길로부터 사람들을 방황케 하니라. 일러 가로되 너희의 불신으로 즐기는 것은 잠시일 뿐 너희는 반드시 불지옥의 주인들이 될 것이라.】 30)

다신론자들에 관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육지와 바다를 건너게 하는 분이 그분이시라. 이는 너희가 바다에서 순풍을 타고 항해하며 그것으로 기뻐하였으나 그 후 폭풍우가 오고 모든 곳에서 파도가 일어 그

---

30) (39:8)

들이 전복되리라 생각될 때는 알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만일 당신이 저희를 구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진실로 감사드리겠다고 하니라. 보라! 그러나 그들을 구제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 거역하며 지상에서 해악을 끼치느니라. 백성들이여, 너희의 거역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잠시 동안의 속세를 즐기고나 알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 31)

【산과 같은 파도가 그들을 덮칠 때 그들은 알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분께 성실히 복종하니 알라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구출하시느니라. 그들 중에는 중간에 있는 자가 있고 또 거역하는 자가 있노라. 은혜를 망각한 불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알라 하나님의 증거를 거역하지 아니하더라.】 32)

무(無)에서 이 우주를 창조한 조물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창조하시고 당신만을 경배하고 당신에게만 복종케 하는 성향을 주입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성으로 당신의 주권과 경배 대상자로서 신성의 유일성을 믿도록 한 것이다. 민족들은 알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인 것처럼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자이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한다.

1. 이 우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수여하시는 분은 창조주 밖에

31) (10:22-23)

32) (31:32). 증거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Muhammad ibn Abdul Wahab의 「Kitab At-Tawhid」 참조.

없다. 그분 외에는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이 우주에 다른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행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창조한 것이 있으며 그가 내린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쌍방 어느 쪽도 창조에 동참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33] 어느 한 쪽이 상대 쪽을 제압하여 복종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패배자는 신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승자가 진정한 신이 되면서 그의 주권과 경배 대상자로서 신성의 유일성에 패자를 동참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은 성자를 두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을 대적할 어떠한 신도 없노라. 만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른 신들을 지배했을 것이라. 알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34]

2.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알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익한 것의 원인이 되고 해악을 예방하여 주며, 사탄과 그것으로 인한 재앙을 제거하여 주시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알라 하나님 밖에 없다. 다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다른 신들이 있었다 해도 인간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취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숭배하였던 모든 다신들도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

33) Sharh Al-Aqidah Al-Thawiyah, p.39 참조.

34) (23:91)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익한 것의 원인이 되고 해악을 예방하여 주는 알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인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물며 거짓 사신들까지도 숭배하는 진정한 주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진리를 찾고 있는 분에게 다음 꾸란을 소개한다.

【일러 가로되 그분 외의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분명 권자에 계신 주님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 했으리라.】[35)]

【일러 가로되 알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주장한 다른 것들에 간구해 보라. 그것들은 하늘과 땅에서 먼지 하나의 무게조차 감당할 능력도 없으며 그 안에서 아무런 몫도 없노라. 그것들 중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노라. 알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중재자도 소용이 없노라…】[36)]

본 절들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통하여 알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다신론자들이 숭배한 사신들은 한 개의 원자 무게만큼도 알라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없다. 그것들은 먼지 하나의 무게만큼도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사신들로 경배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알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35) (17:42)

36) (34:22-23)

대상일 뿐이다.

2) 그것들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단 한 개의 원자 무게만큼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3) 알라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원조자로 취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해악이 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나 그들은 그분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분이시다.

4) 사신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위해 어떠한 중재역할도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중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알라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들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중재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중재권을 허락받은 그분의 친구들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로 그의 말과 행위와 믿음이 그분을 만족시키는 자라야 만이 중재가 가능하다.[37]

3. 이 우주의 정연한 배열과 정확한 운행의 질서로 보아 유일신이요 유일한 주권자이며 유일한 주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분 외에는 창조주도 그리고 어떠한 주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우주가 두 분의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가설이 불가능 한 것처럼 두 주님이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37) Abdurahman ibn Hasan, Qurrat Wuyun Al-Muwahhidin, p.100.

【만일 그 안에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둘은 모두 폐허가 되었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분은 권좌의 주님이시며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분이므로 그분만을 찬미하라.】 38)

만일 하늘과 땅에 알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면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이미 폐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알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이 있었다 해도 이 우주를 독점하기 위해 상대를 제압하려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쟁과 전쟁이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하늘과 땅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을 것이다.39) 인간의 몸에 그것을 움직이는 동일한 두 혼이 있다는 가정도 불가능하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도 역시 망가지고 말 것이다. 하물며 가장 위대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실체가 창조주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40)

4.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일치된 가르침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적이며 도덕과 윤리의 모범자이다. 가장 정직하고 알라 하나님이 원하는 최상의 지식층이며 인류를 가장 바르게 안내하는 최고의 스승들이다. 역사의 민족들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이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만백성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아담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 및 사도들 모두가 알라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 외에는 그 어

---

38) (21:22)

39) Fath Al-Qadir, Vol.3, p.403.

40) Miftah Dar Al-Saadah, Vol.1, p.260.

떤 것도 숭배하지 말며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그대 이전에 사도를 보내어 계시를 내릴 때도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41)]

노아와 관련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라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말라. 고통스러운 날 너희에게 벌이 있을까 두려우니라.】[42)]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와 관련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러 가로되 실로 너희들의 신은 유일신 알라 하나님이라고 내게 계시가 내려졌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지 않겠느뇨?】[43)]

이분은 무(無)에서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한 유일신이다. 그분은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당신의 주권과 경배 대상자로서 신성의 유일성을 확신하는 속성을 인간에게 심어주셨다. 당신에 대한 절대복종과 당신의 길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또 당신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는 영적인

---

41) (21:25)

42) (11:26)

43) (21:108)

평안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다. 사도들이 전한 당신의 올바른 길을 통하지 않고는 당신과의 관계와 접속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당신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면서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찬양할 때 그 이성이 올바른 지식을 얻도록 하셨다.

인간은 본성이 건전하고 영혼이 평온하며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성이 믿음을 가질 때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 뒷골목에서 누가 유익하고 누가 해악을 막아 주는 지도 모른 채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된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믿음을 확립하고 불신의 추함을 들추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한 분만을 믿는 두 사람을 비유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비유하사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느뇨?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노라.】 44)

알라 하나님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과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후자는 여러 신들의 서로 다른 일관성이 없는 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신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감당해야 함으로 혼란에 빠지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가 갖고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한다 해도 신들의 서로 다른 모순 된 욕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방향을 잃고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분의 주인을 둔 종은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

44) (39:29)

다.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그리고 그 주인이 안내하는 하나의 길을 따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같을 수 없다. 한 주인만을 섬기면서 정의와 지식과 확신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는 자와 목적이 상충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여러 주인들을 섬기면서 모든 주인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한 명의 주인도 기쁘게 할 수 없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정신적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과 경배 대상자로서 신성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 입증되었다면 우주를 존재케 하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창조성을 이해하고 그 너머에 있는 그분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우주 창조

알라 하나님께서 무(無)에서 하늘과 땅 , 별들과 은하수, 바다, 나무, 동물, 모든 생명체 등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러 가로되 이틀 동안에 대지를 창조하신 알라 하나님을 너희가 부정하며 그분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한단 말이냐.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라. 그분께서 대지위에 견고한 산들을 두시되 그 위로 높이 두시고 그 안에 축복을 두시었으며 간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흘간의 양식을 주시었노라. 그런 후 그분은 스스로 수증기로 가득한 하늘로 오르시어 하늘과 대지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좋든 싫든 간에 너희가 함께 오라하니 그것들이 답하여 우리는 다함께 복종한다고 했더라. 알라 하나님은 이틀 동안에 일곱 개의 하늘을 완성하신 후 각 하늘에 임무를 부여하사 지상에 가까운 하늘을 빛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보호되도록 하였나니 그러함이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창조이시라.】 [45]

이와 같이 이 우주는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여러

---

45) (41:9-12)

가지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다.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도다. 알라 하나님은 대지위에 산들을 고정시켰으니 그것이 동요치 못하도록 함이며 또한 알라 하나님이 그 안에 넓은 도로를 두어 그들이 인도받도록 하였노라. 알라 하나님은 하늘에 잘 보호된 지붕을 두셨노라.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것의 증표에 등을 돌리고 있느니라.】[46]

모든 곳에 위대한 지혜와 경이로운 증표들이 내재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단 한 절만 심사숙고해 보아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찮은 식물에서도 경이로움을 발견할 것이다. 나뭇잎들과 줄기와 과일을 보라! 그 안에 인간의 지혜로 충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자세히 파악할 될 수 없는 유익함이 가득하지 않는가! 부드러운 나뭇잎과 가날픈 줄기에 흐르고 있는 물을 보라! 눈으로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이로움이 아닌가! 그것들이 어떻게 물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흡수 능력에 따라 세관에 물이 흐르고 있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립자가 되어 목적지까지 이르지 않는가!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며 그것이 영글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벌거벗은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잎으로 무성하게 장식되어 가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후 나약한 열매가 어떻게 맺히며 그 연약한 열매가 더위와 추위와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생각해보

46) (21:30-32)

라. 유아가 어머니의 젖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것들도 그 어떤 실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 않는가! 영양을 공급받아 완전히 영글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벌거벗은 나무에서 이처럼 달콤한 과일이 나온다는 것을 숙고해보라!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을 존재케 한 위대한 원인자, 즉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지구를 쉼터와 침상으로 두셨고 당신의 종 인간들로 하여금 흙을 활용하도록 하셨다. 그곳에서 생계수단을 찾고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셨다.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곳에 길을 두셨다. 그곳에 산들을 두어 고정시키고 그것들을 기둥으로 삼아 지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

지구를 둥글게 펼치고 확장하셨다. 평평하게 하여 살아 있는 생물체의 온상이 되게 하고 죽은 자의 안식처가 되게 하셨다. 지구의 표면은 살아 있는 자의 거주지가 되게 하고 내부는 죽은 자의 거주지가 되게 하셨다

태양과 달과 별들의 궤도를 보라. 이것들이 생성한 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신비스러운 이동을 통해 낮과 밤을 만들고 계절을 만들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만들어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여주는지 보라.

하늘의 창조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보라. 하늘의 고도와 광활함 그리고 안정성, 이것은 바로 창조주 알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증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위로 하늘을 매달아 놓은 것도 없고 아래로 하늘을 받쳐주는 기둥도 없다. 알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늘과 지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우주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배열의 완전성을 보라. 창조주 알라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온전한 지식과 가장 현명한 지혜와 최상의 자비로 이것 역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증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마치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성된 집 같지 않는가! 하늘은 지붕 같고 지구는 안식처로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펼쳐진 양탄자 같지 않는가! 태양이 지구에 햇빛을 보내고 달이 태양빛을 받아 지구에 반사시켜주지 않는가! 별들은 하늘을 장식하며 호롱불처럼 우주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는가! 준비하여 둔 보물처럼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금은보화들은 목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유용되고 있지 않는가!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탈 수 있는 좋은 동물이 있고, 우유를 얻기에 좋은 동물이 있고, 옷감으로 좋은 동물이 있고, 식용으로 좋은 동물이 있으며, 집을 지키고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지 않는가! 누가 인간으로 하여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였는가!

우주의 이곳저곳을 보라. 아니 일부라도 관찰해보라. 얼마나 많은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정직하고 일시적인 생각과 맹목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깊이 생각해보라. 이 우주는, 가장 현명하시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한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에 의하여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 절대자는 둘이 될 수 없고 그분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믿게 될 것이다. 만일 하늘과 땅에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두 신의 명령과 신들과의 전쟁으로 우주의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하늘과 땅은 이미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창조주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창조에 동참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강 주변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 강의 메카니즘과 형태에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하다. 그 강은 기다란 정원 중앙을 통과하고 있다. 그 정원에 있는 갖가지 서로 다른 과일들은 강물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있다. 그 정원에는 관리인이 있어 과수의 가지들이 엉키지 않고 과일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돌보고 있다. 이 관리인은 과일의 가치를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분류하여 서로 다른 가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공급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메카니즘과 정원의 역할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는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상상이 가는가! 그에 관하여 무엇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며 무엇이 어디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는가![47]

우주 창조의 목적 :

이 우주 창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보았다. 알라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경이로운 실체들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들을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리자(Khalifah)를 두시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거주하는 동

---

47) 이 부분은 「Fiftah Dar Al-Saadah」 라는 책 251-269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안 당신을 경배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두셨다. 현세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그의 마지막 거처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순종토록 하였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들이 있노라.】 48)

【알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도록 하여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였노라. 또한 너희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너희가 바다를 운행하게 하고 강을 두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해와 달이 항상 운행질서를 지키게 하고 밤과 낮을 주어 유익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너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베푸셨노라. 너희는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헤아려 보려하나 헤아릴 수 없노라. 실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르더라.】 49)

2.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은 알라 하나님의 주권과 일위일체의 유일성에 대한 증표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알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유일성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알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증거와 증표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증표들로 입증하였다. 그분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꾸란 여러 절에

---

48) 45:13)

49) (14:32-34)

서 그분의 증표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분의 증표 중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가 있고… 그분의 증표 중에는 너희로 하여 밤에는 잠을 자게하고 낮에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양식을 구하게 함도… 그분의 증표 중에는 공포와 희망을 갖도록 너희들에게 번갯불을 보이심과…그분 증표 중에 하나는 하늘과 대지가 그분 명령에 의해 견고하게 있는 것이라…】 50)

3. 부활의 날을 입증하는 것이다. 삶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저세상에서의 삶이 있다. 그렇지만 저세상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세의 삶은 향락과 오락에 불과하나 그들이 내세의 집을 안다면 그것은 곧 진리요 생명이라.】 51)

왜냐하면 내세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보상과 대가를 받는 곳으로 보상을 받을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내려지고 징벌을 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징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곳은 인간이 죽은 후에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와 그의 본성이 변질된 자와 이성이 타락한 자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증거와 증표를 확립하시어 이성으로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도록 하셨다. 알라 하나님은

---

50) (30:22-25)

51) (29:64)

최초의 창조보다 재창조를 더욱 쉽게 하신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훨씬 위대하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창조를 하시고 다시 그것을 재창조하시는 분도 알라 하나님이시라. 그분께는 가장 쉬운 일이라…】 52)

【실로 하늘과 땅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 53)

【알라 하나님은 너희가 볼 수 있는 아무런 지주도 없이 하늘을 세우시고 스스로 권자에 오르셨노라. 그리고 태양과 달을 지정된 날까지 스스로의 길을 따르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노라. 그분께서는 너희가 주님과의 만남을 굳게 믿도록 징표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셨노라.】 54)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그것에 관한 모든 증거와 증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간의 경배를 받을 존재는 알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어느 것도 그분에게 비유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죽은 이후의 부활과 재창조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것보다 더욱 용이하다는 것과, 자신의 업적을 평가받기 위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우주와 삼라만상이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52) (30:27)

53) (40:57)

54) (13:2)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알라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그 분은 왕이요 거룩하시며 위대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라.】[55)]

모든 피조물이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산들과 나무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라 하나님께 부복하여 경배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많은 사람들이 징벌을 받게 되나니 알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노라. 실로 알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라.】[56)]

이들 모든 생명체들은 알라 하나님이 설명한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하늘과 대지의 모든 것이 알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들은 날개를 펴 찬양하고 있음을 그대는 보지 못하느뇨? 모든 것은 제 스스로 경배하고 찬미함을 알고 있으며 알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57)]

여러분의 육신이 알라 하나님께서 주신대로 그리고 그분의 주관하시는 대로 순조롭게 활동하고 있다면 마음과 두 개의 허

55) (62:1)
56) (22:18)
57) (24:41)

파와 간도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를 선택하려 하는가! 여러분은 우주의 질서에서 이탈하려하는가? 여러분의 육신이 비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는가!

이성이 건전한 인간은 스스로 이 위대한 우주의 섭리를 위반하지 않고 우주의 질서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다스릴 것이다.

인간 창조와 예우

알라 하나님은 이 우주에 기거할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결정하고 인간을 지으셨다. 인간을 땅으로 보내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으므로 땅의 흙을 재료로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신성한 지혜였다. 흙으로 형상을 빚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한 후 그 안에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혼을 불어넣으매 듣고,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가장 좋은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은 그로 하여 천국에 살게 하면서 그가 알아야 것을 모두 가르치시고 그에게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하나의 시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한 나무에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알라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와 위상을 보여주시려고 했다. 인간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하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이블리스는 오만과 거만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그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를 당신의 축복에서 내보내버렸다. 그러자 이블리스는 그의 생명을 연장하였다. 부활의 날까지 만이라도 생명을 유예하여 달라고 알라 하나님께 애걸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의 삶을 부활의 날까지 유예하셨다.

이블리스는 아담과 그의 후예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을 유혹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알라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사방팔방에서 방황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알라 하나님은 이블리스의 사악한 계획과 음모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블리스의 음모를 경계하라고 하셨다.

이블리스는 아담과 그의 배필 하와에게 속삭였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나가고 또 두 사람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 만들려고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면 그 둘이는 천사가 되든지 아니면 불멸의 인간이 된다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알라 하나님이 금기한 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대가로 최초의 벌을 받게 되었다. 감추어진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당황하여 주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블리스를 경계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수락하시고 잘못을 용서하셨으며 그를 선택하고 인도하셨다. 예정한 대로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되 일정 기간까지 땅에 있는 것들을 만끽하라고 하셨다. 그곳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니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이렇게 하여 아담은 그의 배우자 하와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 자손을 퍼뜨렸다. 자손들은 모두가 알라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자 아담의 안내에 따라 그분만을 경배하였다. 알라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사 형상을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절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절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절하는 자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거늘, 너는 왜 절하지 않느뇨?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창조하시매 불로 만드셨고 그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라. 네가 이곳에서 거만을 피우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라. 나가라. 너는 분명히 가장 비천한 존재이니라. 이때 그가 말하길 부활의 날 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라고 애걸하더라. 이때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유예되는 자 중에 있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내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또한 그들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방해할 것이니 당신은 그들 대부분이 당신께 감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리요.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으로부터 나가라 저주스러워 추방함이라. 그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 있다면 그들 모두를 지옥으로 채우리라. 아담아 너와 너의 배우자는 천국에서 거주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되 허락된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죄인 가운데 있게 되리라. 이때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숨겨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알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또 그가 맹세하며 말하길, 실로 나는 너희 둘에게 진실한 조언자라.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이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매 그들은 낙원의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더라.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였고 사탄은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말하지 아니 했더뇨? 이때 그들이 말하길,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 가운데 있게 되나이다. 이때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곳이 너희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곳이 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그곳에서 너희가 임종할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부활할 것이라.】[58]

인간을 지으신 알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고, 다양한 명예의 옷을 입혀주셨다. 지능과 지식, 웅변과 화술, 아름다운 형상과 몸매, 실증과 교육을 통해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정의와 순종과, 알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같은 고상한 자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옷도 입혀주셨다. 미세한 정액으로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의 상황과 에덴의 천국에서 천사들이 엎드려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였을 때의 상황은 얼마나 다른가!

58) (7:11-25)

【 … 가장 훌륭하신 창조주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축복 받으소서.】 59)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분주하게 살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천사들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어떤 천사들은 인간에게 양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를 공급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인간을 위해 우주의 궤도가 돌고 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시간과 셈하는 것을 알려주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바람과 공기와 구름이 그렇고 새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대지와 산이, 바다와 강, 나무와 과일, 식물과 동물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도록 하여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노라. 또한 너희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너희가 바다를 운행하게 하고 강을 두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셨노라.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해와 달이 항상 운행질서를 지키게 하고 밤과 낮을 주어 유익하게 하셨노라. 그분은 너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베푸셨노라. 너희는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보려하나 헤아릴 수 없노라. 실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르더라.】 60)

---

59) (23:14)

알라 하나님은 인간의 명예를 완성하기 위해 현세에 살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두셨고, 내세에 가서 최상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두셨다. 성서들을 내리셨고, 사도들을 보내 알라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그 분에게로 초대하도록 하셨다.

그런 후 아담의 몸에서 배우자를 창조하여 함께 동거하도록 하면서 서로가 정신적, 육체적,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서로가 휴식과 평안과 안정을 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평온과 만족과 사랑과 자비를 찾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본능적 구조와 신경구조가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하면서 동거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애정이 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쌍방의 관계는 정신과 신경을 편안하게 하여주고, 육신과 마음에 평안을, 삶과 생활에는 활력을, 영혼과 양심에는 안정을,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는 평온을 안겨준다.

알라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인들을 택하여 당신이 보호할 구성원으로 삼으신 후 그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의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들 중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이 현세에서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내리셨다.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하며, 그분에게만 구원을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에게 또 다른 위대한 축복들을 내려 다른 사람

60) (14:32-34), Miftah Dar Al-Saadah, vol.1, p.327-328.

들과 차별되게 하셨다. 안정과 평온과 행복이 그것이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사도들을 통해서 제시된 알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에 갔을 때 천국에 살면서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두셨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진실성에 따라 그분의 사랑과 보상을 받으며,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총은 한없이 더하여진다.

여성의 위상

이슬람에서의 여성은 이슬람 이전의 그 어떤 국가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명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남녀가 동등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벌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을 영광되게 하셨으며… 】[61)]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 귀속되고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것이 적던 또는 많던 합당한 몫이 있노라.】[62)]

---

61) (17:70)

62) (4:7)

【 …또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노라…】 63)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라…】 64)

【주님께서 명을 내리셨노라.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늙었을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대꾸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라.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해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65)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너희가 행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 66)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알라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며 그들이 행한 선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하실 것이라.】 6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남녀가 천국에 들어가나니 그들이 받을 보상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노라.】 68)

---

63) (2:228)

64) (9:71)

65) (17:23-24)

66) (3:195)

67) (16-97)

68) (4:124)

이슬람에서 여성이 누리는 명예는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교리나 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로마 문화에서 여성은 남성을 위한 노예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했다. 로마에서 여성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대 회의가 열렸지만 이 결론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결정이 되면서 여성은 내세의 삶도 함께하지 못하는 불결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여성은 쓰레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시장에서 사고파는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기도 했다. 혐오스러운 사탄의 작품으로도 묘사되었다.

인도의 고대법에서는 여성이 역병, 죽음, 지옥, 독사뱀의 독이나 불보다 못했다. 여성의 운명은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남편이 바로 부인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시체를 보았을 때 그녀는 스스로 불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렇지 안했을 경우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교에서의 여성은 어떠했는가. 다음의 내용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성에 대한 판결문이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저에게 잡하리로다." 69)

---

69) 전도서 7:25-26. (본 내용은 역자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관주 성경전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을 신성시하고 믿었으나 지금은 단지 신성시 하고 있을 뿐이지 구약의 내용을 지키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신약성경을 성서로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 시대의 여성의 위상은 그러했다. 그렇다면 중세와 당대에 있어서 여성의 위상은 어떠한가. 위스 코르드스텐(Wieth Kordsten) 덴마크 작가는 여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세 때 유럽 여성에 대한 배려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을 두 번째 단계의 피조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서력 586년 프랑스에서 회의가 열렸다. '여성을 인간으로 배려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여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였다. 토론 후에 나온 결론은 여성도 인간이지만 남성을 위해 봉사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결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프랑스 법 2172조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은, 비록 그녀의 소유권과 남편의 소유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헌납할 수 없고, 증여할 수 없고, 저당을 잡힐 수도 없고, 타인에게 넘길 수도 수 없다. 배상이나 무배상도 계약이나 구두 동의 또는 서면 동의에 따라 남편이 동참할 때만 배상과 무배상도 가능하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영국 여성들에게 성서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 1850년 까지 영국 여성은 시민권을 갖지 못했으며 1882년까지는 개인의 권리도 갖지 못했다.[70)]

오늘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그 밖의 산업국가에서의 현대 여성의 상황은 어떠한가! 상품으로 전락된 소비재 상품에 불

신약에 등장한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70) Ahmad Shalaby, Silsilatu Maqaranatil Adyan, vol.3, p.210-213.

과하지 않는가! 상품광고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즐길 목적으로 남성들이 만든 규정에 따라 여성은 자신들의 몸과 명예를 팔고 있지 않는가!

그곳의 현대 여성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매력적인 몸매가 갖추어져 있을 때까지만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된다. 늙고, 병들고, 돈이 없어지면 개인도 그리고 단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여성은 집에서 또는 요양소에서 외로운 인생을 보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을, 물론 모두가 동등하지는 않지만, 꾸란에 언급된 여성의 위상과 비교해보라.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라…】 71)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노라…】 72)

【주님께서 명을 내리셨노라.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늙었을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대꾸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라.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해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73)

---

71) (9:71)

72) (2:228)

73) (17:23-24)

알라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어머니, 아내, 딸, 누이로 창조하시면서 여성의 명예를 존중하셨고 남성이 아닌 여성만의 임무와 역할을 두셨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

알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배우자 하와를 창조한 후 천국에서 살도록 하셨다. 아담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나 그가 회개하자 알라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안내하셨다. 그리고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다.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인간의 혀로 표현하기 힘든 그분의 지혜와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만 열거하고자 한다.

1. 창조의 목적은 당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74]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참 신앙생활은 축복과 영생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 영생의 세계는 축복을 받는 곳이지 해야 할 임무가 있고 시련을 겪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

74) (51:56)

2. 알라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교우들과 순교자들을 두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셨다. 그들을 그분의 적들과 함께 둔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 당신만을 좋아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얻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와 순교자의 위상은 알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상의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으로 내려 보낸 이후 그의 자손들 중에서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위상이다.

3. 알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주권자이시다. 명령과 금지령을 내리고, 보상과 벌을 내리고, 초라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강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분의 이러한 주권이 아담을 땅으로 보내고 그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주권자의 법을 보낸 후 그곳에서 인간이 행한 것에 따라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될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다.

4. 알라 하나님은 땅의 흙을 가지고 아담을 빚으셨다. 땅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고, 저질의 것과 고상한 것이 있다. 알라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하기에 부적합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놓은 곳, 즉 땅으로 아담을 내려 보내셨다. 그런 후 그의 자손들을 두 거처의 사람들로 분류하셨다. 좋은 사람들은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살도록 하셨고, 나쁜 사람들은 불행한 곳, 즉 지옥의 불에서 살도록 하셨다.

5. 가장 훌륭한 이름들은 모두 알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몇 가지만 언급한다. 용서하시는 분(Al-Ghafur), 가장 자비로우신 분(Ar-Rahim), 관용을 베푸시는 분(Al-Afuww), 가장 온유하신 분(Al-Halim) … 이 명칭들의 영향이 반드시 나타난다. 알라 하나님은 아담을 땅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곳에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드러나도록 하셨기에 당신이 원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온유하시다.

6. 알라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창조하심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욕망과 유혹, 이성과 지능에 마음을 기울이는 속성을 두셨다. 이성과 욕망을 두시고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것으로 인간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권능과 주권 안에서 당신의 자비와 온유함과 정의를 보여주시기도 한다. 아담을 땅으로 보내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시험을 거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치른 시험성적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신다.

7. 불가시계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신앙이다. 불가시계를 목격할 수 있다면 부활의 날을 믿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축복의 세계인 천국에서 창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쁨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불가시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땅으로 내

려 보내 그곳에서 불가시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 이유다.

8. 알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은혜를 베푼 당신의 종들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알도록 하여 그들이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여 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 당신의 적들을 위해 준비한 징벌을 보여주면서 그들만이 누릴 최상의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도록 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그들에 베풀어준 은총을 완성하는 일면이다. 이 모든 축복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자비와 은혜를 내리시고, 당신의 뜻과 정의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불명예를 내리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가장 현명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9. 알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이 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현세에서 근심과 고민, 역경과 슬픔 등을 맛보도록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역경이 역경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75)]

인간의 기원과 창조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은 왜 올바른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75) Miftah Dar Al-Saadah, vol.1, p.6-11.

인간은 왜 종교가 필요한가?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의 필요성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는 행위가 무엇이고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행위이며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위인가를 식별하여주는 것이 바로 신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알라 하나님의 정의요 진리요 당신의 종들에게 내리는 빛이다. 인간은 신법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법이 식별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뜻을 갖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가 지금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성으로 판단하여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의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76)]

무신론 사상과 유물론 사관이 범람하고 이념과 사상이 번성하고 있는 한 개인과 사회는 진리의 종교가 없이는 결코 목표

---

76) Shaikh Al-Islam Ibn Tayimiyah, Al-Tadmuriyyah, p.213-214 and Miftah Dar Al-Saadah, vol.2, p.383.

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데오르기에 빠진 자들은 인간의 정신적 욕구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데오르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자신에게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그의 갈증을 식혀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어니스트 리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고, 지능과 학문과 과학을 이용하는 자유도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지상의 삶을 저속한 협곡으로 몰아넣으려는 유물론과 물질사상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77)

무함마드 파리드 와즈디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종교가 인간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고상하며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라지기는커녕 종교심이 더해갈 것이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 항상 그를 계속 뒤따르고 그의 정신적 능력과 지식의 발전은 그의 종교심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78)

그래서 만일 인간이 주님을 멀리한다면 자신의 정신능력과 지식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된다. 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으며,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그에게 해가 되는지,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게 된다. 또 천문학이나 은하계, 수학이나 원자력

---

77) Muhammad Abdullah Daraz, Al-Din, p.87.

78) ibid., p.88.

등 과학 부문에도 얼마나 무관심 했는가를 깨닫는다. 그때 아는 자는 환상과 오만의 단계를 단념하고 겸손과 순응의 단계로 전환하면서 과학 저 너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가장 현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연 저 너머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편견이 없는 연구자로 하여금 불가시계의 존재를 믿도록 하여 진리의 종교에 순응하게 만들고 본능과 본성의 욕구에 응답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이 여기에서 벗어날 때 그의 본능은 퇴화되어 멍청한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진리의 종교는 일위일체의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제정한 신법에 따라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적인 삶에서 생활화 될 때 참 종교라 말할 수 있다. 온 누리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게 하여 행복을 얻고, 그렇게 하여 파괴와 고난과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해야만 한다. 이것은 지적 능력을 완성하는데도 필요하다. 지적으로 굶주린 자는 그것을 통해서만 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종교는 정신교육과 감정순화에도 필요한 요소이다. 숭고한 정신은 종교에서 넓은 공간을 찾아내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 내 그 안에서 얻고자 한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완성해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망과 절망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력을 무장시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문명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종교적이다." 79)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적인 힘과 의지력의 힘 두 가지를 갖고 있어 온전한 행복은 과학적인 힘과 의지력의 힘을 완성하는데 달려있으며 과학적인 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창조자이시고 일용할 양식의 수여자이신 주님을 아는 일이다. 그분은 무(無)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는 분이시다.

2. 알라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이 명칭들과 속성들이 그분의 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는 일이다.

3. 알라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길을 아는 일이다.

4. 그 길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다.

5.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다.

이 다섯 가지를 알게 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과학적인 힘을

---

79) op.cit., p.84, 98.

완성할 수 있다. 과학적인 힘과 의지력의 힘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들에 대한 알라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권리들을 성실히 그리고 진실하게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수행하며 인간에 베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분의 도움 없이 이 두 가지 힘을 완성하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을 안내하셨던 바른 길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80)]

진리의 종교는 영혼의 힘을 지탱해주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종교는 사회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인간 생활은 서로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원만할 수 있다. 상호협력은 인간관계를 제도화하고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제도 역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고, 제도보존을 장려하고, 제도의 규정을 보장하고, 그 제도의 신성함을 위반하지 않을 통치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통치권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땅에는 종교의 힘만큼 제도를 존중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가지며, 사회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인간이 살아 있는 여타 생명체들과 구별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처신하는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데 있다. 그 어떤 것이 바로 영혼을 순화하고 인간의 행위를 정화하는 믿음이요 종교이다. 그런데 인간은 건전한 종교와 부패한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이 건전한 종교라면 모든 것이 건전할 것이며 자신이 믿는 것이 부패한 종교라면 모든 것이 부패할 것이다.

---

80) Al-Fawaid, pp.18-19.

믿음은 자신에 대한 감시자이다.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의 도덕적인 탁월성과 고귀한 명예를 믿는 형태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외적 결과와 물질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형태이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형태가 있다. 알라 하나님은 비밀을 감시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당신의 명령과 금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인간의 양심을 발동시켜 당신을 사랑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신다.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유발시키기도 하신다. 이 믿음의 형태가 인간의 양심을 다스리고 마음의 변덕과 감정의 변화를 다스리는데 있어 보다 큰 힘을 발휘하고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대중의 마음과 지도층의 마음에도 그 영향력이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의와 공평성을 바탕으로 가장 원만한 인간관계를 확립해주는 최선의 보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는 사회적 필수품이다. 그래서 인간사회의 종교는 바로 육체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81)]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위상이다. 우리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종교와 교리들을 목격하고 있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민족종교를 지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갈구하고 있는 진리의 종교는 어떤 것이며 진리의 종교를 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81) Al-Din, p.98, 102.

올바른 종교를 가름하는 기준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보편적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종교라고 믿고 있다. 변질된 일반 종교 또는 사람들이 만든 민족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믿는 이유와 근거를 말해보라고 하면 선조와 부모가 지켜온 종교로서 그 길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대꾸한다. 그들은 단지 선조들과 부모의 길을 따라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오류와 결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근거를 대가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누가 쓰고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는 교리책에 매달려서, 하물며 최초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어느 나라에서 건너온 것인지도 모른 책들에 자신들의 믿음을 맡기고 있다. 전달자들의 계보와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꾸며지고 조합되고 과장된 책들을 믿고 따르고 있다.

출처가 알려져 있지 않은 책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선조와 부모가 믿어온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 이것들은 종교나 교리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변질된 종교와 사람들이 지어낸 민족종교들이 진리의 종교,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종교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

면 진리는 단 하나이지 여러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질된 종교들과 인위적인 민족종교도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진리는 단 하나뿐인데 모두는 여러 개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종교는 여러 종교 중에 어느 것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종교를 가려내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올바른 종교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될 수 없다.

진리의 종교가 되는 기준

첫째: 창조주 알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당신의 사도에게 전달하고 사도가 당신의 종들에게 전하는 종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의 종교는 인간을 창조한 알라 하나님의 종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활의 날 당신이 내리신 종교에 근거하여 심판하고 계산하여 보상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였거늘 이는 노아나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예수와 욥과 요나와 아론과 솔로몬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다윗에게 시편을 내린 것과도 같으니라.】 82)

【그대 이전에도 사도를 보내면서 나 외에는 신이 없으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83)

---

82) (4:163)

위에 언급된 내용과 기준에 따르면 알라 하나님이 교주가 아니고 인간이 교주인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었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다.

둘째: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믿고, 그분에게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하며, 비유를 유도하는 모든 수단을 버리라고 촉구하는 종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알라 하나님의 일위일체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 하니라…】 84)

이 기준에서 볼 때 다신론의 종교나 어떤 예언자나 천사 또는 성인을 신격화하는 종교는 올바른 종교가 될 수 없다.

셋째: 모든 사도들이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살생하지 말고, 알게 모르게 부도덕한 짓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가 올바른 종교이다.

【그대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내면서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85)

---

83) (21:25)

84) (7:73)

85) (21:25)

【일러 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일러 주리라. 그분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삼아 너희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또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불결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며 알라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혜를 배우도록 한 것이니라.】 86)

【그대 전에 보낸 알라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물어보라. 자비로우신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라 하였더냐?】 87)

넷째: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금기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일부에게는 허용하고 일부에게는 금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 그들은 꾸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느뇨? 만일 그것이 알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 88)

다섯째: 명령과 금지법을 통해서 사람과 종교와 명예와 재산과 생명과 자손들을 보호하고, 이 다섯 가지를 보호하는 도덕과 윤리를 담고 있는 종교이어야 한다.

---

86) (6:151)

87) (43:45)

88) (4:82)

여섯째: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종교이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박해로부터, 그리고 상호간의 권리침해로 인한 박해, 횡포,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박해에서로부터 인간을 구제하는 종교이어야만 된다. 모세에게 내린 토라가 담고 있는 자비와 예수를 통한 자비와 살레에 대한 자비가 소개되고 있다.

【노여움이 가라앉자 모세는 그가 던졌던 서판을 집어 올렸더라. 그 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과 자비가 있느니라.】 89)

【…그로 하여금 백성을 위한 예증이 되게 하고 자비가 되도록 하였노라…】 90)

【살레 이르되, 백성들이여! 내가 나의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게 자비가 있었으니 내가 그분을 거역한다면 알라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구하겠느뇨? …】 91)

【내가 꾸란을 계시함은 이로 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자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92)

일곱째: 알라 하나님의 법으로 안내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치며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는 종교이어야 한다.

---

89) (7:154)
90) (19:21)
91) (11:63)
92) (17:82)

【내가 복음과 빛이 들어 있는 토라를 보내노라…】 93)

【…복음과 빛이 들어있는 신약을 예수에게 내려 보냈노라…】 94)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사도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 95)

진리의 종교는 알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복음이어야 하고, 인간을 위해 평온과 안정을 유지시켜주고, 모든 유혹을 막아주고,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종교이다.

여덟째: 높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진실, 정의, 성실, 겸양, 정직, 아량 같은 행위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불효, 자살 같은 나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음란행위, 거짓말, 억압, 학대, 인색, 방탕생활 같은 것을 금지하는 종교가 올바른 종교이다.

아홉째: 믿는 자에게 행복을 실현시켜 주고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는 종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종교는 바로 알라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올바른 이성도 그분의 창조물이므로 그분의 창조물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93) (5:44)

94) (5:46)

95) (9:33)

【따 하. 내가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함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대를 고생되게 하려함이 아니라.】 96)

【…알라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이 종교를 두셨노라…】 97)

열 번째: 진리와 정의를 촉구하고 불의와 거짓과 위선을 경고하며 방황의 길에서 바른 길로 안내하는 종교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굴곡이 없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교이어야 한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꾸란이 낭송될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영마(Jin)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은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모세 이후에 계시되어 그것을 확증하고 진리와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성서에 관하여 들었노라.】 98)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종교가 아니어야 한다.

【따 하. 내가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를 고생되게 하려함이 아니라.】 99)

파괴의 길로 몰아가는 종교가 아니어야 한다.

---

96) (20:1-2)
97) (30:30)
98) (46:30)
99) (20:1-2)

【…너희 자신들을 살해하지 말라. 알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100]

인종과 피부색깔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으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노라. 알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알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101]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꾸란을 통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도들이 보여준 일반적인 식별 기준을 확인하였다. 다음에는 종교의 종류와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00) (4:29)

101) (49:13)

종교의 종류와 형태

믿는 종교에 따라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처럼 계시된 성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성서들 안에 담겨진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알라 하나님 외에 인간을 신격화하여 왔다.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알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내린 원성서들을 분실하고 말았다. 그런 후 사제들이 책을 쓰고 그것을 알라 하나님의 성서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이 내린 성서가 아니고 거짓의 가설이요 왜곡된 환상일 뿐이다.

한편 무슬림들의 성서인 꾸란은 어떠한가. 이제 알라 하나님의 마지막 원서로 남아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보존을 인간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그것의 보존을 약속하셨다.

【내가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내가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102)

---

102) (15:9)

그 결과 꾸란은 암기를 통하여 무슬림들의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고 책으로 보존되어 있다. 왜냐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한 최후의 성서이기 때문이다. 당신께서는 그것이 종말의 그날까지 영원히 보존되면서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셨고, 모든 세대를 거쳐 당신의 법과 말씀을 준수하고, 당신의 법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셨다. 꾸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103)]

두 번째는 알라 하나님이 내리신 성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 힌두교, 배화교, 불교,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들은 그들의 교주에게서 비롯된 책들을 갖고 있을 뿐이다. 사도 무함마드 이전의 아랍인들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모든 동물들을 위해 주신 일반적 지식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동물에서 먹을 고기와 마실 우유를 얻도록 하는 지식을 주셨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지식을 주셨다.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혐오하는 지식도 주셨다.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모든 것에 특성을 두사 그것으로 유용케 하셨노라.】[104)]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

103) 본서 113-119, 134-137 참조.

104) (87:1-3)

【모세가 말하길, 우리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에게 기능을 주신 분이시라.】 105)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106)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잠시만 관찰하고 생각해보아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지식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고 그의 행위도 더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종교인들보다 종교인들에게서 더 좋은 점들이 발견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슬림이 갖고 있는 것은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하며, 타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식과 행위에는 두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종류: 지능 그리고 수학이나 의학, 산업 같은 학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종교인에게도 있고 비종교인에게도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종교인이 보다 좋은 것을 성취한다. 한편 신학이나 종교학처럼 단순한 이성으로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공분야이다. 이 같은 지식의 종류는 논리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105) (20:50)

106) (26:78). Al-Jawab Al-Sahih, vol.4, p.210-211 참조.

사도들의 안내를 받아야한다.

두 번째 종류: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종류의 지식과 행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것, 당신의 명칭과 속성들, 당신에게 복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내세의 축복, 당신에게 거역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당신의 명령에 대한 세부 설명, 지나간 예언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 관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107]

---

107) Shaik Al-Islam Ibn Tayimiyah, Majmuu Fatawa, vol.4, pp.210-211.

현존하는 여러 종교들의 상황

훌륭한 종교들을 탄생시킨 본래의 옛 성서들과 성법은 조롱하는 자와 장난꾼들의 먹이가 되고 위정자들과 위선자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피의 전쟁과 대재앙의 제물이 되어버렸다. 하물며 그 위대한 성서들의 혼과 형태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그 위대한 종교들을 전했던 최초의 선구자들과 예언자들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선구자들과 예언자들을 부인하고 모르는 척 할 것이다.

오늘날의 유대교는[108] 혼과 생명이 없는 일련의 의식과 전통행사에 불과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민족에만 국한하는 특정 민족종교가 되어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메시지와 보편적 임무와 보편적 자비를 잃어버렸다.

이 종교의 최초 교리는 다른 종교와 민족들에게 모토가 되어 있었다. 예언자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손들에게 가르친 일위일체의 유일신 종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스스로 이웃 민족들의 부패한 교리들을 상당히 첨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배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여 그들의 부패한 교리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이들의 우상숭배 사상의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였다. 편견을 허락하지 않는 유대 역사가 이 사실을 확

108) Samuel ibn Yahya Al-Maghrabi, Ifham Al-Yahud 참조. 이 저자는 이슬람교로 전향한 유대인이었다.

인해주고 있다. 유대 대사전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상숭배에 대한 예언자들의 분노는 우상숭배와 사신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마음속에 침투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신교 사상과 미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탈무드 역시 우상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매력을 끌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09]

바벨 탈무드[110]는 유대인들이 토라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것을 극도로 신성시 한 것으로 서력 6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폭넓게 보급되어나갔다. 이 탈무드는 알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어수룩한 마음과 얼빠진 말장난과 거만한 행위의 표현들을 담고 있다. 현실에 대한 냉소, 종교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장난,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유대 공동체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었다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111]

기독교는 어떤가![112] 그것 역시 초기부터 극도로 왜곡되고 변형되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인들의 다신교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113] 초기부터 그러한 것들이 누더기

---

109) Jewish Encyclopedia vol.xll, pp. 568-569.

110) 탈무드는 유대교리와 도덕교육을 가르치는 책으로 각주와 미쉬나(Mishna)에 대한 해설의 총서이다. 미쉬나는 여러 세대의 유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다.

111) Rohlange, Al-Yahud ala Hasab Al-Talmud and its translation from French to Arabic in "Al-Kanzul Marsud fi Qawaidit-Talmud" by Yusuf Hanna Nasrullah.

112) 기독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aik Al-Islam ibn Taymiyah가 저술한 「Al-Jawab Al-Sahih liman Baddala Din Al-Masih」 책과 Rahmatullah Al-Hindi가 저술한 「Izhar Al-Haqq」 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Abdullah Al-Turjuman이 저술한 「Tuhfah Al-Arib fi Radd ala Ubbad Al-Salib」 참조.

가 되었다.

왜곡되고 변형된 다신론 사상이 누적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이 매장되고 일위일체의 유일신 사상과 그분을 위한 진실한 신앙생활이 이러한 먹구름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한 기독교 작가는 삼위일체 교리가 4세기말부터 기독교 세계에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침투하였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위일체의 신관이었던 교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삼위일체설로 변형되면서 이 신관이 기독교세계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서력 4세기 후반에 들어와 기독교세계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삼위일체설 교리의 발전은 19세기말 중반 이후까지도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 114)

기독교인이며 현시대의 한 사학자는 『현대과학에서 본 기독교 역사』란 그의 저서에서 우상숭배 사상이 기독교 사회에 다양한 형태, 당양한 색깔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관습과 축제일이 그리고 모방과 찬사의 대상이 된 고대종교의 민족 영웅들이 종교의식으로 다양하게 채택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상숭배는 끝났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침투하여버렸다. 모든 것이 기독교란 이름과 기독교란 베일을 뒤집어쓰고 계속되었다. 사신들이나 민족의 영웅숭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순교자를 선택하여 신격을 부여한 후 동상을 만들어 세웠다. 이처럼 다신론 사상과 우상숭배 사

113) Draper, The Struggl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p.40-41 참조.
114) New Catholic Encyclopaedia, The Holy Trinity vol.14, p.295.

상이 지역 또는 민족 순교자들에게 전이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순교자 숭배론과 성인 숭배론이 기독교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들 성인들에게 신성이 부여되는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여 신성을 부여받은 이들 성인들은 창조주 알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축제의 명칭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졌다. 고대부터 내려온 태양 우상숭배 축제가 서력 400년에 메시아 탄생 축제, 즉 크리스마스로 변형되었다." 115)

배화교는 어떠한가! 고대부터 자연숭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생각한 불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종교이다. 불 숭배에 빠진 자들은 제단을 올리고 사원을 세웠다. 배화교 사원들이 여러 나라 이곳저곳에 들어서자 불숭배론과 태양숭배론 종교 외의 그 지역 종교들과 교리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종교는 추종자들에 의해 특정한 지역에서 행하는 종교의식과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 116)

「사산왕조 시절의 이란」이란 책을 저술한 덴마크 학자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층과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 네 차례 불을 숭배하는 예배의식을 해야 했다. 이러한 임무 외에도 달과 불과 물도 숭배하였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불과 물이 서로 만나지 않게 해야 하고, 금속이 녹슬지 않게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왜냐하면

---

115) Rev. Jamecs Houstion Baxter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Light of Modern Knowledge Glasgow, 1929, p.407.

116)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동양어 대학의 Arthr Krstn Sin 교수의 「Iran during the Reign of Sasanids」 저서 및 이란 역사 전공 Shahin Makareus 학자의 「History of Iran」 저서 참조.

그들은 금속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이다." [117]

이들 배화교인들은 이원론을 도입하였고 이것이 그 종교의 핵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신을 믿었다. 아후르 마즈다(Ahur Mazda), 또는 야즈단(Yazdan)이라 불리는 빛의 신 또는 선의 신을 두었고, 아후르 만(Ahur Man)이라 불리는 어둠의 신 또는 악의 신을 두었는데 이 두 신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118]

불교는 어떤가! 인도와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로 추종자들이 불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식을 행하는 우상숭배 종교이다. 불자들은 이 불상들을 모시는 불교사원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마다 부처의 동상을 세우기도 한다.[119]

브라만교는 어떤가! 이것은 인도 민족종교로 여러 다신을 믿는 종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종교는 서력 6세기에 절정에 달하는데 그 당시 신들의 숫자는 3억 3천에 달했다.[120] 브라만종교에 의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모든 것이 위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유용하게 되어 하나하나가 숭배 받을 신들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조각하는 예술 산업이 큰 대접을 받게 되고 따라서 많은 우상 조각가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인도 작가 C. V. 비다는 『중세 인도 역사』란 그의 저서에서 하라쉬(Harash; 606-648)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

117) Iran during the reign of Sasanids, p.155.

118) Ibid., pp.183-233.

119) Aishura Toba 하이드라바드 대학교 인도문화 교수가 저술한 『The Ancient India』 책과 인도 전 총리 Jawahar lal Nehru가 저술한 『The Discovery of India』 저서 참조.

120) R. Dit, Ancient India, vol.3, p.287; L.S.S.O. Malley, The Prevailing Hinduism, pp.6-7.

다. 이 시기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출현한 시기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힌두교와 불교는, 비록 불교가 힌두교에 앞서 우상숭배에 먼저 빠져있기는 했지만, 두 종교는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한 종교였다. 초기 불교는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다. 그런데 차츰차츰 부처를 가장 위대한 신으로 받들기 시작했다. 후에 와서는 보디스타바스(Bodhistavas)와 같은 다른 신들을 추가하였다. 인도에서의 우상숭배가 절정에 달하면서 부처라는 이름이 어떤 동양권 언어에서는 우상, 또는 동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우상숭배와 관련한 종교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다.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크게 몰두되어 있다. 기독교와 셈족 종교와 불교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상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데 경쟁을 하고 있다.[121)]

또 다른 인도 학자는 「퍼져가는 힌두교」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상들을 만드는 예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조그마한 신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신상의 집단으로 발전했고 그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고 신상을 만드는 일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 [122)]

이것이 세계 종교의 현상이다. 위대한 정부가 세워지고 과학이 발달한 소위 문명과 산업과 학문의 요람으로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올바른 종교가 없는 나라들이 되어버렸다. 본래의 종교와 의미를 잃어버린 국가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국

---

121) C. V. Vidya, History of Mediaval Hindu vol.1(Poone 1921).

122) Abu Al-Hasan Al-Nadawi, Al-Sirat Al-Nabawiyah, pp.19-28.

가에는 본래의 종교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선구자도 없고 본래의 의미를 가르치는 스승도 없다. 무신론이 공표되고, 여러 종류의 많은 것들이 부패하고, 모든 기준이 변경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하는 사건이 크게 늘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가고, 사회적 관계가 와해되고,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사기꾼들의 무대가 생겨나고 있다.

소위 문명국가라고 말하는 이런 국가의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하면서, 그리고 꾸며낸 새로운 교리를 따르면서 자신의 영혼이 추구하는 욕구와 행복을 충족시키려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과 향락이, 이러한 교리들이, 이러한 이론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켜주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과 그분이 보낸 사도들의 안내에 따라 그분만을 경배할 때 까지 그는 계속하여 정신적 빈곤과 영적 고통을 겪게 된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가 그분의 안내를 찾는 조건이 꾸란에서 제시되고 있다.

【나의 교훈에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부활의 날 나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라.】 123)

신앙인들이 현세에서 평온과 행복을 얻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믿는 자들과 자신들의 믿음을 불의와 혼합하지 아니한 자들이 평온을 얻고 바른 길로 안내 받노라.】 124)

---

123) (20:124)

【축복을 받을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이는 천지가 존속할 때까지라. 실로 그분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니라.】[125)]

이슬람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종교에 앞서 언급한 진리의 종교, 올바른 종교가 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종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조주 알라 하나님의 일위일체 신관이다. 모든 종교가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다른 것들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되고 변형된 이들 종교들은 인간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할 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종교와 명예와 자손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종교들은 서로 상충된 모순을 안고 있어 알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으로 안내하지도 못하며 추종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슬람교는 어떤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것만이 가장 바르고 영원한 진리의 종교로 알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사 인간을 위해 내려주신 종교이다.

본 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자의 지위와 징표, 그리고 인간이 예언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사도들의 사명과 마지막으로 온 이슬람교의 영원한 메시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24) (6:82)

125) (11:108)

예언자 지위의 본질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축복을 쏟아주신 주님을 아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두신 것은 당신만을 홀로 경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셨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분을 어떻게 사실대로 알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 대한 그분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분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무엇이며 그분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인간은 자신이 부침(浮沈)에 빠져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플 때 누가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여 줄 수 있는지, 약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서 약을 가져와야 하는 지, 집을 지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존재케 한 창조주를 알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사람은 보통 사람들 중에서 찾을 수가 없다.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인간의 지능만으로 알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당신이 택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이분들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올바른 길로 안내받은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간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은 직접 인간에게 말씀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또는 가리개 뒤에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내린 것으로 이는 그분의 뜻이라. 실로 그분은 지고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니라.】 126)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중개자들과 특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요 사도들이다. 천사가 알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이 사도들이 인간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천사가 직접 인간에게 메시지들을 전한 것이 아니다. 천사들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셨노라…】 127)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필요한 민족에게서 사도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의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어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가르침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천사들이 사도로 택함을 받아 인간에게 보내졌다면 그와 대면할 수도 없고 그로부터 아무 것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128)

---

126) (42:51)

127) (22:75)

128) Abi Al-Fida Ismail ibn Kathir Al-Quraishi, Tafsir Al-Quran Al-Azim, vol.3, p.64.

【또 그들은 천사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 하느뇨 라고 묻더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에게 천사를 보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 만일 내가 한 천사를 사도로 선택하여 보냈다하여도 그를 한 인간의 형태로 내려 보냈을 것이라. 그리하여 혼돈 중에 있는 그들을 더욱 혼돈케 하였으리라.】 129)

【그대 이전에 알라 하나님이 보냈던 사도들도 모두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 다녔노라. 나는 너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험 하였노라 너희는 인내할 수 있느뇨? 알라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나와의 만남을 바라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 천사들이 오지 않느뇨? 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보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불손한 자들이라.】 130)

【나는 그대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냈으되 인간에게 보냈노라.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노라.】 131)

【내가 사도를 보내매 그의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로 보냈으니 이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분명케 하고자 하였음이라. 알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는 자를 방황케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

---

129) (6:8-9)

130) (25:20-21)

131) (16:43)

시라.】 132)

이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이성과, 건전한 본성과, 언행의 진실과 자신들에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신뢰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릴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있으며, 건전한 인간의 취향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다.133)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품위를 정화하셨기에 그들은 가장 완벽한 품위와 가장 순수한 정신과 고상한 품행과 훌륭한 품성을 갖고 있다. 온유함과 지식과 관용과 자비와 너그러움과 용기와 정의를 겸비한 위인들이다. 이들은 자질 면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민족과 차별되는 인물들이다. 예언자 살레가 속한 민족이 말했다.

【이때 그들이 말하길 살레여 너는 우리 중에서 우리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던 것을 금지하느뇨? 네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울 뿐이라.】 134)

【그들이 말하길, 슈아이브여 너의 기도는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만 두도록 명령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뜻대로 함을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냐? 너야 말로 온유하고 바른 안내를 받은 자가 아니냐.】 135)

---

132) (14:4)

133) Lawamiu Al-Anwar Al-Bahimah, vol.2, p.265, and Ahmad Shalabi, Al-Islam, p.114.

134) (11:62)

무함마드는 그에게 메시지가 내려지기 전부터 믿음직 한 사람(Al-Amin)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알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장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로 묘사하셨다.

【실로 그대는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라.】 136)

그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알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후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두실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시노라…】 137)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므란의 가족을 선택하셨느니라.】 138)

이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비록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상한 자질과 탁월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 묘사하셨지만, 그들 역시 다른 인간들처럼 배고파하고, 병들고, 잠자고, 먹고, 결혼하고, 죽는 인간들이다.

【어느 날 그대도 죽을 것이요 그들도 어느 날 죽을 것이

135) (11:87)

136) (68:4)

137) (6:124)

138) (3:33)

라.】[139]

【그대 이전에도 나는 사도들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손을 갖게 했노라…】[140]

그러나 그들은 모진 학대를 받기도 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도들이 살해되거나 고향에서 쫓겨났기도 했다.

【불신자들이 그대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그대를 속박하고 살해하거나 추방하려 음모를 상기하라. 알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 계획을 하시나니 알라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라.】[141]

그러나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와 권위의 결말을 얻게 되었다.

【…실로 알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니라…】[142]

【알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사도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실로 알라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143]

139) (39:30)
140) (13:38)
141) (8:40)
142) (22:40)
143) (58:21)

예언자 지위의 징표

예언자의 지위는 가장 고귀한 지식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이들 예언자들에게 지위의 증표로 내리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들을 알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어떤 증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믿을 만한 자라면 그의 진실성을 가리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가 거짓말쟁이라면 그의 거짓 언행을 가리키는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증표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사도는 오로지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 외에는 어떠한 사신도 두지 말라고 촉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알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2. 사도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라고 촉구해야 한다.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실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알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모두에게 사도로 보내셨노라…】[144)]

144) (7:158)

3. 사도는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예언자 지위에 관한 여러 가지 징표가 있어야 한다. 이 징표들 중에는 사도 무함마드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표가 있다. 그것은 그가 속해 있는 민족 어느 누구도 그 증표를 거부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증표를 이루게 할 수 없다. 모세가 보인 증표도 있다. 그의 지팡이가 한 마리의 뱀으로 변한 기적이 있다. 예수가 보인 증표도 있다.

알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한 증표가 있다. 사도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예언자 지위에 관한 증표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증표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무학자인 그에게 내려진 위대한 꾸란이다.

이 증표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가져온 분명하고 생생한 진리이다. 적대자들이 거역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진리이다. 사도들이 가져온 진리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들 적대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완벽한 상태, 아름다운 특성, 우아한 성품을 주신 것도 예언자 지위의 징표 가운데 하나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적대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촉구한 것이 승리하도록 하여 주는 것도 예언자 지위의 증표이다.

4. 사도가 촉구한 메시지는 다른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촉구한 근본과 일치해야 한다.[145]

145) Shaik Al-Islam ibn Taymiyyah, Majmu Fatawa, vol.4,

5.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를 숭배하라고 하거나 사도를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언행과 그가 속한 가문이나 부족을 찬양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일러 가로되 내가 알라 하나님의 보물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온 천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에게 계시된 것을 따를 뿐이라…】 146)

6. 사도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물질적인과 것과 세속적인 보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후드, 살레, 룻, 슈아이브 예언자들을 통해서 임무 수행에 따른 대가 요구를 금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노라. 실로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께서 주시니라.】 147)

사도 무함마드를 통해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일러 가로되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하며 나 또한 위선자가 아니라】 148)

---

pp.212-213.

146) (6:50)

147) (26:109, 127, 145, 164, 180)

148) (38:86)

이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갖고 있는 예언자 지위와 자질에 관한 증거는 대단히 많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알라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 있었고 방황하게 하는 자도 있었으니 대지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 149)

사람들은 이 사도들로 인하여 행복을 맛보았다. 역사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입증하고 있다. 사도들을 통해서 소개된 종교법이 반복되어 전해졌다. 이들 사도들은 진리였고 정의였다. 그들은 알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두고 적들은 멸망한 사건들이 전해지고 있다. 사도 노아가 승리하고 파라오가 멸망한 사건, 롯의 백성이 징벌을 받는 사건, 적들에 대항한 사도 무함마드의 승리와 이슬람교의 전파 등이 바로 그 증거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최초의 예언자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인간을 위해 기쁜 소식과 복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교훈을 가져왔다는데 의심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149) (16:36)

인간은 왜 사도들이 필요한가?

예언자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낸 사도들로 이들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당신께서 약속한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당신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의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지나간 민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그 민족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로 현세에서 그들이 받았던 징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만으로는 창조주께서 명령하시고 금기하신 뜻과 목적을 다 알 수 없다. 당신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고,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두시었다.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노예가 되기 쉬어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타인을 공격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여 그가 속한 민족에게로 보내 당신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고 충고도 하며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주도록 하셨다. 신기한 의미가 담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며 그 이유를 깨우치고 받아들이면서 지식과 상식을 더해갔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이 숙

고하고,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를 보내는 것은 불가피했고 인간 사회에 진리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150]

쉐이크 이슬람 이븐 타이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신성 메시지는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내세에서 그를 위한 행복이 없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현세에서도 그를 위한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알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과정은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는 실천행동이 있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퇴치하는 실천행동이 있다. 창조주의 법은 인간에게 유익하고 해가 되는 것을 밝혀주는 빛이다. 그것은 땅을 위한 빛이요 당신의 종들을 위한 정의이며 그 안에 들어온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채다.

신법의 목적은 유익한 것과 해가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식별하는데 있지 않다. 물론 동물은 그것이 가능하다. 당나귀와 낙타는 보리와 모래 사이에서 구별과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현세와 내세에서 행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와 현세와 내세에서 행위자에게 유익한 행위를 식별하는데 있다. 두 세계에서 동시에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 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 그분에 대한 순종, 자선, 정직, 순수, 용기, 지식, 인내, 좋은 일에 대한 권장과 나쁜 일에 대한 경종, 친인척간의 유대강화, 부모에 대한 효도, 이웃 사랑,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 창조주를 위한 진실의 행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강구하는 일, 그분

150) Ali ibn Muhammad Al-Mawurudi, Aolam Al-Nubuwah, p.33.

이 정해준 운명에 대한 만족,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복종,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도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과 행복을 위해 알려준 것, 그와는 정반대로 현세와 내세에서 불행이 되고 해가 된다고 알려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만일 신성 메시지가 없었다면 인간은 현세의 삶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가장 위대한 축복은 사도들을 스승으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 책들을 보내 그 안에서 바른 길을 설명하고 가르쳐 준 것이다. 만일 이런 축복이 없었다면 인간은 동물처럼 되어버렸거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와 그것으로 버팀목을 삼는 자가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며,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는 가장 비참한 피조물로 그는 개나 돼지의 상황보다 못하고 가장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 메시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는 지구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 그 메시지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종료되고 인간을 안내하는 증표들이 없어지면 알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파괴하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필요한 것은 태양과 달과 바람과 비가 필요한 것과 같지 아니하고, 인간이 영혼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눈이 빛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육신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욱 그리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이다. 사도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의무사항을 권장하고 금지사항을 경고하는 대사들이다. 그들 중에서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마지막으로 온 사도는 바로 무함마드

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누리에 자비가 되도록 하셨고, 바른 길을 따르는 자를 위한 증거가 되고 그 길을 거부하거나 벗어난 자에 대항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순종하라 하셨고 그를 사랑하라 하셨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경하라 하셨으며, 그의 권리를 존중하라 하셨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계약과 맹세를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로부터 받으셨다. 또한 그들을 따르는 신앙인들로부터 동일한 계약과 맹세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징벌을 경종하는 경고자로서, 알라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는 초청자로서, 빛을 밝히는 등불로서 그를 보내셨다. 그를 통하여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것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라 하셨고, 그것으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라 하셨고, 그것으로 눈 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라 하셨고, 그것으로 듣지 못하는 벙어리의 귀를 듣게 하라 하셨고, 그것으로 산만한 마음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그것으로 야수 같은 공동체를 바로잡으라 하셨고, 그것으로 분명한 증거를 밝히라 하셨고, 그것으로 마음을 열게 하라 하셨고, 그것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라 하셨고, 그것을 염원하는 자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것이 내리는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그것으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자로 만들라 하셨다.

얼만 동안의 기간을 두고 전임 사도들에 뒤이어 그를 보내 이전 성서들의 효력을 종결지으셨다. 알라 하나님의 본래 말씀들이 왜곡되고 신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각 부족마다 자신들의 사견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부패한 언행으로 알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판단하자 그를 통해 인간을 안내하고 그를 통해 바른 길을 보여주도록 하신 것이다. 그를 통해 사람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탈출시키려 하셨고, 기쁨을 맛볼 사람과 불행에 처할

사람들을 구별하려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 그의 안내를 따르는 자는 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며, 누구든 창조주의 길에서 벗어난 자는 방황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힐 것이다." [151]

인간에게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간은 후천성의 피조물로 그를 존재케 한 창조주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의 안내와 그들이 받은 성서들을 통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다.

2.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의 양식은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영혼을 창조한 절대자 알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창조주가 제시한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올바른 종교와 올바른 행위인 것이다. 올바른 종교와 올바른 행위를 소개한 분들이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다.

3.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전하고 올바른 종교이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믿고 그들이 소개한 것들을 믿는 길 뿐이다.

---

151) Shaik Al-Islam ibn Taymiyyah, Qaidah fi Wujub Al-Itisam bil-Risalah, vol.19, p.99-102(Majmua Al-Fatawa); Lawami Al-Anwar Al-Bahiyah, vol.2, p.261, 263.

4. 인간은 현세에서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과, 내세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천국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언자와 사도들이 아니고는 그 길로 안내할 자가 아무도 없다.

5.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약한 존재이며 이곳저곳에서 많은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려 하고, 사악한 것들이 그럴 듯 하게 그들을 유인하면서 사악한 행위를 부추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적의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인간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그 길을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은 바로 예언자들이요 사도들뿐이다.

6.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균형과 조화를 확립해 줄 규정과 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는 인간생활은 정글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법은 모든 사람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어야 한다. 치우치거나 불평등해서는 안된다. 그런 완벽한 법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시된 것뿐이다.

7. 인간은 자신에게 평온과 정신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 무엇이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소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왜 인간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필요한 가를 설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종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종점

죽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

죽은 이후에 부활된다는 것, 그리고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선한 마음을 가졌고 좋은 일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나쁜 마음을 가졌고 나쁜 일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152] 많은 사람들과 여러 민족들이 믿고 있다. 부활과 업적평가, 그것에 관하여 신법이 그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건전한 이성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인식할 것이다. 이 사실은 다음 세가지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1. 주님의 완벽한 지식에 대한 확신
2. 주님의 완벽한 능력에 대한 확신
3. 주님의 완벽한 지혜에 대한 확신[153]

---

152) Al-Jawab Al-Sahih, vol.4, p.96.

153) Ibn Al-Qayyim, Al-Fawaid, pp.6-7.

인간의 마지막 종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논리적 증거들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의 창조능력이 죽은 이후 인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알라 하나님은 그것을 재창조하심에 지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그분께서는 만사능통하시니라.】 154)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단 말이뇨? 그렇지 아니함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전지하시니라.】 155)

2. 최초의 창조능력은 재창조할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것을 재창조할 보다 큰 능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창조를 하시고 다시 그것을 재창조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분께는 가장 쉬운 일이라.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완전함으로 존재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하시니라.】 156)

---

154) (46:33)

155) (36:81)

156) (30:27)

【인간은 나와 유사한 것을 지어내며 내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썩어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라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소생시킬 것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종류의 것을 창조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157)

3. 그분께서는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 그리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지으셨다. 사지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 살과, 뼈와, 혈관과, 신경과, 몸으로 통하는 입구와 출구를 주셨고, 성품과 지능과 의지력과 그 밖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의 능력이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증거다.

4. 이 세상에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세에서 죽은 자의 생명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알라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이 보낸 성서들의 이야기 속에서 밝히셨다. 그 중에 알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언자 아브라함과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었다.

5. 회복의 능력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집합시켜 부활시키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1) 알라 하나님께서는 온 몸에 흩어져 있는 한 방울의 정액

157) (36:78-79)

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바로 신체의 각 부분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신체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자 방울을 여성의 자궁에서 난자와 결합시켜 인간을 지으셨다. 신체의 모든 각 부분이 흩어져 있었는데 당신께서 그것들을 모아 그것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음으로 인간이 죽고 나면 그것들은 다시 산산이 흩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흩어진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무엇이 제지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인간의 정액을 생각해 보았느뇨. 그것은 너희가 창조한 것이뇨 아니면 내가 창조한 것이뇨.】[158)]

2) 다양한 식물의 각양각색의 씨앗들이 비옥한 땅에 떨어졌지만 그곳에 물이 있고 흙이 쌓였다고 가정하자. 논리적으로는 그 씨앗이 부패하고 썩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흙 또는 물 둘 중의 하나로 그 씨앗이 썩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두 가지가 함께 그것을 썩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썩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습도가 올라가면 그 씨앗이 움을 틀 것이고 거기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것 역시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지혜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의 소유자인 주님께서 산산이 흩어진 인체의 모든 각 부분들을 모아 재조립한 후 새 생명을 불어넣을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

158) (56:58-59)

【너희가 땅에 뿌린 씨앗을 보지 아니 했느뇨. 너희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뇨 아니면 내가 자라게 하느뇨.】 159)

【…그대는 황폐하게 되고 생명을 잃은 대지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그곳에 비를 내릴 때 대지는 다시 생동하고 솟아오르며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초목들이 생성하노라.】 160)

6. 완벽한 능력, 완벽한 지식, 완벽한 지혜의 소유자인 창조주께서 장난과 재미로 피조물을 창조하여 무의미하게 두지 않았다는 것도 그 증거다.

【나는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만물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벌이 있으리라.】 161)

무의미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지혜와 고상한 목적을 두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162)

그러나 이것은 당신에게 복종하는 자와 당신을 거역하는

159) (56:63-64)

160) (22:5)

161) (38:27)

162) (51:56)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지상에서 해악을 저지른 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느뇨? 내가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룰 수 있겠느뇨?】 163)

그래서 인간의 업적에 따라, 즉 선한 마음을 가진 자와 좋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 나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주기위해 부활을 두신 것이 창조주의 완벽한 지혜요 위대한 힘이시다.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귀의하나니 이는 알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라. 그분께서는 창조를 개시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반복하사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있게 하시며 불신자들에겐 이글거리는 물을 마시게 하니 이것은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징벌이니라.】 164)

마지막 날 그리고 부활의 날에 대한 믿음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1. 인간은 그날 보상을 얻을 희망으로 알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날의 징벌이 두려워 그분에게 거역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한다.

---

163) (38:28)

164) (10:4) 앞에서 소개한 Ibn Al-Qayyim의 Al-Fawaid, p.6, 9참조. Al-Raji, Al-Tafsir Al-Kabir, vol.2, pp.113-116 참조.

2.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현세의 축복과 즐거움보다 더 큰 내세의 축복과 보상으로 신자들을 위로한다.

3.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 이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악한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받는 것을 알게 된다. 업적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현세에서 악한 일을 하였다면 복수를 당하게 되고, 학대와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가해자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아 온다는 것도 알게 된다.

4. 알라 하나님과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특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알라 하나님과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비밀리 또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려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은, 혹시 마음에 두었던 나쁜 생각까지도 없애주기 때문이다.

5.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타인을 박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와 행위를 저지시켜준다. 마지막 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준다.

6.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의 삶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만든다.

본 장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줄곧 교회에서 일을 하여 오다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미국인 윈베트(Win Bet)가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그가 발견한 결과에 대해 언급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리고 나의 종점은 어디인가?" 165)

165) Al-Dawah Magazine Al-Saudiyah No. 1722, H.1420. 9. 19, p.37.

사도들의 본질적인 임무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다.[166] 모두가 한결같이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성서들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도들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좋든 싫든 운명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사신을 두지 말고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되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다음 네 가지 종류의 죄악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음란행위와 비행, 학대, 알라 하나님에게 사신을 비유하는 다신론적 신앙, 우상 및 우상숭배를 단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사람을 살해하지 말 것, 이자를 취하지 말고 고아의 재산을 삼키지 말 것, 약속을 이행할 것,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말 것, 부모에게 효도할 것, 사람들에게 공정할 것, 언행이 진실할 것, 낭비하지 말 것, 거만하고 오만하지 말 것, 남의 재산을 부정하게 삼키지 말 것 등을 한결같이 촉구하고 있다.

이븐 알까임은[167]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소개된 모든 성서들은, 비록

166) 일반적인 근본원리들은 꾸란 알-바까라 2:285, 286; 알-안암 6:151, 153; 알-이스라 17:23, 37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167) 그의 본명은 Muhammad ibn Abi Bakr ibn Ayyub Al-Zaroi이다. H.691년에 태어나 H.751년에 사망한 훌륭한 이슬람 학자로 많은 대작을 남겼다.

약간의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동일한 근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과 관련한 내용 모두가 인간의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법이 만일 이런 형태로 도래하지 아니했다면, 비록 그것들이 그런 형태로 도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겠지만 그것들은 현명하지 못했을 것이고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인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진리가 그들의 욕망을 따랐다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하였을 것이라. 내가 저들에게 교훈을 보냈는데도 저들은 그 교훈에 등을 돌리더라.】 168)

현명한 사람이라면 최상의 판사인 알라 하나님의 신법이 현재의 것과 정 반대의 형태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169)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이 하나의 종교를 믿고 실천한 이유이다.

【사도들이여 허락된 좋은 것들을 섭취하되 선을 행하라 너희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노라. 실로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항상 나만을 두려워하라.】 170)

---

168) (23:71)

169) Miftahu Dar Al-Sa'adah vol.2, p.383; Al-Jawab Al-Sahih liman Baddala Din Al-Masih vol.4, p.322; Safari, Lawami' Al-Anwar vol.2, p.263.

170) (23:51-52)

【그분은 노아에게 내리진 종교를 너희들의 종교로 정하셨노라. 그분이 그대에게도 계시한 것이라. 또한 그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노라. 알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한 자들을 그대가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길은 어려운 것이라. 알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며 그분께로 귀의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171)]

이 종교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목적은 다른 사신을 두지 않고 알라 하나님 한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172)] 그분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제정하시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두셨다. 동시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그리고 당신을 기쁘게 할 방법도 제시하셨다. 신법에 따라 인간이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 신법은 상처를 주지 않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주지 아니하며, 본능과 영혼과 주변의 세계와 충돌하지 않는 법이다.

사도들 모두가 한결같이 신성한 종교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본적인 믿음의 근본원리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일상생활의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토라(Torah)는 교리의 근본원리와 함께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법을 제시하였다.

【내가 복음과 광명이 담겨져 있는 토라를 보내매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판결하였으며 법학자들

---

171) (42:13)

172) Shaik Al-Islam ibn Tayimiyah, Majmu' Fatawa vol.2, p.6.

과 유대학자들도 그렇게 하였노라…】 173)

그 후 예수를 통해서 복음과 광명이 담겨진 인질(Al-Injil)이 소개되었다. 이 성서는 앞서 온 토라의 내용을 추인하고 있다.

【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토라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노라. 그 분은 그것 이전에 계시된 토라를 추인하고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복음과 광명이 담겨진 성서를 내려 보냈노라.】 174)

그 후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를 통하여 완벽한 종교로서 최후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이전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제시된 창조주의 신법을 추인하는 증거로서 당신께서 무함마드에게 꾸란(Quran)을 내리신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추인하고 증명하는 성서를 내리나니 알라 하나님이 내린 것으로 그들을 판결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 175)

또한 이전의 예언자들과 사도들 모두가 알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와 함께 했던 신앙인들 모두 당신만을 믿으라고 하셨다.

---

173) (5:44)

174) (5:46)

175) (5:48)

【나의 사도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었노라.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랬노라. 그들 모두는 알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을 믿었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사도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듣고 복종하며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여정의 종점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더라.】 [176)]

176) (2:185)

영원한 메시지[177]

앞서 설명한 유대교, 기독교, 배화교 등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서력 6세기의 실상을[178] 잘 보여주고 있다. 종교가 부패하자 청치와 사회, 경제적 상황이 타락하였던 시대였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곳저곳으로 확산되어가고 독재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마음을 어둠과 창조주에 대한 불신과 미신으로 유도하였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하였다. 바다와 육지에서 부패는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그 당시의 상황은, 지식인들이 보기에 마치 최후의 날을 맞은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아무런 구원의 희망도 없이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을 향해 죽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알라 하나님께서 횃불을 든 예언자를 보내 그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셨다.

이 시기에 알라 하나님께서 신전이 있는 메카로부터 영원한 예언자의 빛을 발산하도록 하셨다. 그 당시 메카 환경도 어느 인간사회의 환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우상숭배와 무지와 부정

177) Safi Al-Rahman Al-Mubarakpuri가 저술하고 최영길이 번역한 「Al_Rahiq Al-Makhum」 책 참조.

178) 본서의 종교적 상황 참조.

과 독재가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구별되는 점이 많이 있었다.

1. 이곳은 그리스나 로마 혹은 인도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깨끗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었으며 뛰어난 웅변술과, 생기 넘치는 정신력과, 그리고 예외적인 자연환경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2. 이곳은 지리적으로 전 세계 중심부에 놓여 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에 놓인 중심 지역이었기에 영원한 메시지가 짧은 기간에 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 세 대륙으로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었다.

3. 이곳은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었다. 아비시니아의 왕 아브라하가 메카를 공격해 왔을 때 알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으며, 인접하고 있는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도 이곳을 정복할 수 없었다. 북부와 남부 지역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상거래도 안전했다. 이러한 환경은 예언자가 출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버렸다.

【…나는 저들을 위하여 안전한 성역을 마련하고 그곳에 우리의 양식인 모든 종류의 과일을 주지 않았느냐? …】 179)

4. 메카는 사막과 돌산들로 둘러싸인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갖고 있었다. 아랑, 이웃과의 좋은 관계, 명예를 지키려는 열의 등 많은 특성을 갖고

179) (28:57)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영원한 메시지 출현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바로 이곳에 품행의 모범이 되고 웅변과 화술에 능숙한 것으로 잘 알려진 꾸라이쉬 부족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 출신의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이자 최후의 사도로 택하신 것이다. 그는 이곳 메카에서 570년에 탄생했다.

모친이 임신 중일 때 부친이 사망하였기에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가 네 살이 되었을 때 모친도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 이후부터 그는 삼촌 아부 딸립 댁에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성장해가면서 그에게서 총명함과 뛰어난 재간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품행과 행동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대화에서 과장됨과 거짓이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귀중한 재물들을 맡길 정도로 그는 진실하고 정직했으며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재물처럼 여러 사람들의 재물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주었다. 이런 일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자(Al-Amin)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수줍어함이 많아 그가 철이 든 이후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순진했고 신앙심이 깊었기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거나, 치고받으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사는 그런 일에만 동참하고 그들이 빠져 있는 수치스럽고 죄가 되는 일들은 멀리했다. 그는 고아들과

미망인들을 돕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의 나이 40세에 이르는 동안 부패한 주위 환경이 그를 심각하게 괴롭히면서 그로 하여금 주님 경배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바른 길로 안내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한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메시를 가지고 내려와 그에게 전달하였다.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알라 하나님만을 홀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전하였다. 계시는 법과 규범의 형태로 인간을 구원할 완벽한 종교가 될 때까지 매년 간헐적으로 그리고 계속하여 계속되었다. 이렇게 하여 알라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은총을 완성하신 것이다. 마지막 사도로써 임무를 마쳤을 때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63세의 나이로 데려가셨다. 그의 나이 40까지가 인간 시대였다면 그가 세상을 떠난 그 날까지의 23년 동안은 예언자이면서 사도의 시대였다.

예언자들의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들의 생애를 연구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함마드의 예언자 지위처럼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명된 예언자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이다.

모세와 예수에게 예언자 지위가 확립된 경우를 비교해보면 무함마드에게 예언자의 지위가 확립되는 과정이 보다 신뢰가 있고 보다 연속성이 있으며 보다 현대에 가까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보여준 기적들이나 증거들보다 무함마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증거들이 보다 위대하다는 것도 발견된다.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과 증거는 바로 꾸란이다. 그것은 음성과 문자로, 의미와 자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본 그대로 살아 내려오고 있는 기적이

이기 때문이다. 모세와 예수와 무함마드를 통해서 제시된 교리와 법과 지식을 비교해보면 모두가 하나의 램프, 즉 예언자의 램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언자들을 따른 추종자들과 무함마드를 따른 추종자들을 비교해보아도 그들 모두는 인간을 위한 가장 훌륭한 스승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이후의 사람들이 이들 추종자들의 영향을 받아 일위일체의 신관을 전파하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약자와 가련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0)]

무함마드의 예언자 지위에 관하여 더 많은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하여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알리 이븐 랍반 타바리가 발견한 증거와 근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도는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 무함마드는 다른 예언자들과 동일한 교리를 소개하였다.

2. 그는 알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징표들을 보였다.

3.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였고 그 사건들은 그의 예언대로 일어났다.

4. 그는 이 세상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건들은 그가 말한 대로 발생했다.

---

180) Shaik Al-Islam ibn Tayimiyah, Majmu' Al-Fatawa, vol.4, p.201, 211; Al-Samawal Al-Magribi, Ifham Al-Yahud, p.58-59.

5. 그를 통해서 소개된 꾸란은 그의 예언자 지위를 입증한 징표들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가장 호소력을 가진 꾸란이 글을 읽을 수도 그리고 글을 쓰지도 못하는 무학자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또 화술에 능통한 웅변가들에게 꾸란 같은 것이나 꾸란의 수라 한 장만이라도 이르게 하여보라고 도전까지 하였다. 사실은 알라 하나님께서 그것의 보존을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바른 신앙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신법이 되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가장 훌륭한 공동체를 확립하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6. 그는 마지막 예언자이다. 만일 그가 마지막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앞서 온 예언자들이 말한 기쁜 소식들이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7. 앞서 온 예언자들이 오래 전부터 그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그의 임무에 관해서, 그의 고향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과 왕들이 그와 그의 민족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는 소식과 이슬람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8.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부족들을 제압했다는 것도 그의 예언자 직위에 대한 증표다.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고 주장한 거짓 사도에게는 그러한 승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였고, 적을 제압하였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많은 추종자들을 두었다. 이러한 일은 진정한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9. 그는 종교의식을 지켰고, 정직했고, 진실했고, 그의 신분과 품위와 행동은 모범이었다. 이러한 품성은 진실한 예언자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이야 말로 분명한 특성이요 충분한 증거들이다. 이러한 품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언자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고 번성하며 그에 대한 믿음은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이 증거들을 거역하고 부인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노력이 헛되고 현세와 내세에서 잃은 자가 될 것이다." [181]

본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두 가지 증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있었던 로마 왕의 증거와 당대의 기독교 선교사 존 세인트의 증거이다.

첫 번째 증거: 헤라클리우스의 증거

알부카리가 아부 수피안의 전언을 소개하고 있다. 로마 왕이 그를 불러 갔을 때 아부 수피안이 말했다.

"헤라클리우스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교역을 하기 위해 카라반 일당을 인솔하고 시리아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 그 당시 예언자 무함마드는 아부 수피안과 꾸라이쉬 부족 이교도들과 휴전[182] 상태에 있었다. 일리야 지역에[183]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 헤라클리우스에게 갔었다. 헤라

---

181) Ali ibn Rabban Al-Tabari, Al-Din wal-Dawlah fi Isbat Nubuwah Nabiina Muhammad, p.47; Al-Qurtubi, Al-I'lam, p.362.

182) 후데이비아 휴전을 가리키며 휴전기간은 그 기간은 10년이었다. Al-Bari, p.34.

클리우스의 초청으로 그가 궁궐로 갔을 때 로마의 위대한 보좌관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통역사를 불렀다. 그리고 수피안에게 물었다.

"당신들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요?"

아부 수피안이 대답했다.

"혈육관계로 봐서는 제가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번에는 헤라클리우스가 그의 수행원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를 내 가까이 데려오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그의 뒤에 세워라."

그리고 이번에는 통역사에게 말했다.

"저들에게 말해라. 내가 이 아부 수피안에게 예언자라고 하는 자에 대해 질문할 것이니 만일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 논박하라."

아부 수피안이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기록될 거짓말이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라면 저는 이미 그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에 관하여 나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와 비교해서 그의 혈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자 아부 수피안이,

그는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귀족 출신의 혈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물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의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

183) 오늘날 시리아 지역의 한 도읍.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귀족들이냐 아니면 허약한 서민들이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허약한 서민들입니다."

그가 물었다.

"그의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나는 대답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물었다.

"추종자들 중에 그 종교를 믿었다가 그 종교를 규탄하고 떠난 자가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가 배반한 적이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휴전 상태에 있어서 그가 무슨 짓을 하려하는지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부 수피안이 덧붙여 말했다.

"이것은 단지 제가 그를 불리하게 한 진술에 불과합니다."

헤라클리우스가 더 물었다.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적이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와의 전쟁에서 결과는 어떠했느냐?"

나는 대답했다.

"팽팽했습니다.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지시했느냐?"

나는 대답했다.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다른 사신을 절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숭배한 우상숭배와 미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인척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리우스가 그의 통역관에게 말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그의 계보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너는 그가 가장 훌륭한 가문의 혈통이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이 사도들의 경우이며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속한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혈통의 가문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나는 너에게 질문을 했었다. 너희 중에서 이전에 그가 요구한 것을 요구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나는 말했다. 너희 중에서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사람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되풀이 했는가?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고 너는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그의 선조들 중에서 왕이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없었다고 대답했다. 만일 그의 조상 중에서 왕이 나왔다면 나는 그가 선조왕의 왕국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너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는 그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알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훌륭한 가문출신인지 아니면 나약한 서민들인지 질문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나약한 서민들이며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추종자들이었다고 너는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질문했을 때 그들의 숫자가 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너는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추종자들 중에 그 종교를 믿었다가 그 종교를 규탄하고 떠난 자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없었으며 마음속에 믿음이 파고들었으며 그 후의 신앙은 그렇게 된다고 너는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그가 당신을 기만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았으며 그처럼 사도들은 기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질문했었다.

"그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알라 하

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다고 너는 대답했다. 만일 네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예언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너희 민족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더라면 나는 어떠한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 그와 함께 있다면 나는 그의 발을 씻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서 헤라클리우스는 그 사도가 디흐야(Dihya) 편으로 바스라 지역의 통치자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헤라클리우스는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자비하시고 자애로운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로부터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 헤라클리우스에게

이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귀하를 이슬람으로 초대합니다. 이슬람을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안전할 것이요 알라 하나님께서 귀하에게 두 배의 보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절하시게 되면 귀하는 야르신[184]의 죄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나 여러분을 막론하고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시다. 그분에게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고 그분 외에는 어떠한 사신도 두지 맙시다. 만일 그들이 되돌아선다면 이렇게 말하시오. 실로 우리는 일위일체의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무슬림입니다.[185]

---

184) Al-Bukhari, The Book of Al-Jihad, bi-Lafz(Al-Arisin).

두 번째 증거:

이것은 현대의 기독교 복음주의자 존 센트가 말한 것이다.

나는 이 원칙과 평등사상에 근거하여 개인과 사회에기여하고 이슬람의 사회정의 실현과 일위일체의 유일신관에 관하여 읽어본 후 나의 이성과 마음이 강하게 이슬람으로 이끌려갔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지구촌 방방곳곳에 이슬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슬람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알라 하나님께 약속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깊이 공부하고 기독교에 깊숙이 빠져 있다가 기독교가 인간의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의심에 빠졌다. 그는 공산주의와 불교에 대해서도 연구해보았지만 역시 이 두 종교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슬람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것을 믿게 되고 이슬람을 소개하는 인물이 되었다.[186)]

---

185) Al-Bukhari,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1.

186) Al-Mubashshir Al-Tarazi Al-Husaini, Al-Din Al-Fitri Al-Abadi vol.2, p.319.

마지막 예언자의 지위

지금까지 예언자의 지위와 그와 관련한 징표와 증거, 무함마드의 예언자 지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 예언자 지위에 관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알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사도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사도의 메시지가 어떤 특정 민족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사도가 그의 메시지를 이웃 민족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갖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알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를 통해 특정 민족에게 당신의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신다.

2. 선임 예언자의 메시지가 사라질 경우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종교를 회복하시기 위해 다른 예언자를 보내신다.

3. 선임 예언자의 규범이 그의 시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그 다음 시대에는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공간에 적절한 메시지와 법을 주어 다른 사도를 보내신다. 그런데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메시지를

주어 무함마드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의 메시지를 변경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막아서 살아 있는 메시지, 왜곡되지 않은 메시지, 추가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메시지, 오염되지 않는 메시지, 원본대로 남아 있는 순수한 메시지가 되도록 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그리고 꾸란을 마지막 메시지로 결정하신 것이다.[187)]

이리하여 당신께서는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시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예언자가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그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완성하셨고, 그것으로 당신의 법을 종료하셨고, 그를 통하여 구제를 완료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예언자 지위가 실현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88)]

가톨릭 신부였던 이브라힘 칼릴은, 후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였지만, 이 원문의 내용이 사도 무함마드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기술하였다.

"나의 본보기와 나 이전 예언자들의 본보기가 집 한 채를 완성하고 아름답게 장식한 자와 같습니다. 그는 한 모퉁이에 돌을 채우지 않고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둘러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왜 이 모퉁이에 이 돌을 쌓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나는 마지막으로 온 돌이요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189)]

187) Al-Aqid ah Al-Tawawiyyah, p.156; Lawani' Al-Anwar Al-Bahiyah vol.2, p.269, 277; Mabadiu Al-Islam, p.64.

188) 마태복음 21:42절

이것이 바로 알라 하나님 당신께서 무함마드를 통해 보낸 성서가 이전의 모든 성서들 위에 증거 하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성서들을 폐기하는 책으로 두신 이유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함마드의 규범이 이전의 모든 규범을 폐기하도록 하면서 그 메시지의 보존을 보장하셨다. 그렇게 하여 그 성서는 음성과 기록으로, 의미와 문자로 오늘날까지 계속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언어적 가르침과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전통이 계속하여 내려오고 있으며, 이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에 응용한 전통과 예배의 실천행동과 그의 관행과 규범이 계속하여 내려오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기와 그의 전통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의 교우들이 인류를 위해 사도의 일거일동과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 예배하는 방법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꾸준한 노력,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 주님께 회개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으며, 사도의 아량, 용기, 교우들과의 관계, 부모에 대한 관계를 전하고 있다. 사도의 기쁨과 슬픔, 여행과 체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예절, 옷을 입는 예절, 잠에서 일어날 때와 잠자리에 들 때의 예절 … 등을 보존하면서 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 종교가 알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것이다. 또한 그가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요 사도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를 마지막 사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

189) Ibrahim Khalil Ahmad, Muhammad in the Torah, Gospel and Quran, p.73; Al-Bukhar, Fi Kitab Al-Munaqib, Chapter18 wal-Lafz lahu; Muslim, Fi Kitab Al-Fadail Hadith 2286 min Hadith Abi Hurairah, wa huwa fi Al-Musnad vol.2, p.256, 312.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알라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라…】[190]

무함마드 자신도 스스로를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라고 하였다.

〔나는 모든 인간을 위해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입니다.〕[191]

다음에는 이슬람의 본질과 실상과 기원과 골격과 등급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

190) (33:40)

191) Ahmad fi Musnadihi vol.2, p.411-412; Muslim fi Kitab Al-Masajid wal-Lafz lahu Hadith 523.

이슬람 의미

언어학 사전을 들여다보면 이슬람이란 단어가 복종, 순종, 굴복, 항복, 명령과 금지에 대한 이의 없는 맹종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복종이요 이의 없는 순종이며, 당신만을 경배하고, 당신의 말씀만을 믿으며, 당신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기 때문이다. 이슬람이란 명칭은 당신께서 사도 무함마드를 통해서 소개한 당신의 종교이다.

이슬람의 정의

알라 하나님이 제정한 종교가 왜 이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가? 지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 종교들은 제각기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민족의 이름을 본 따 불려진 종교들이다. 기독교(Christianity)는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불교(Buddhism)는 부다(Buddah)의 이름에서, 조르아스트교(Zaradashtism)는 기수(旗手)였던 자라스트(Zaradasht)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대교(Judaism)는 유대(Judah) 민족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이란 명칭은 어떤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이란 명칭도 어떤 특정 인물이나 민족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슬람(Islam)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유래한 어떤 특별한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 이슬람이란 명칭은 어떤 특정 인간이나 어떤 특정 민족의 이름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어떤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범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이나, 당대의 사람들이나, 미래의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슬람의 자질을 갖는 자는 무슬림(Muslim)으로 불려질 따름이다.

이슬람의 실상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어떤 일정한 법칙과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태양과 달, 별들과 지구 모두가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그 법칙에 대항할 수도 없고 그 법칙에서 한 순간도 이탈할 수가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자신에 대해 곰곰이 숙고해보면 자기 자신도 절대자 알라 하나님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육신의 모든 기관들이 그분의 신성 법칙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한 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이며, 물이나 음식이 왜 필요한 지도 모를 것이며, 빛과 열의 느낌도 모를 것이다. 신체의 모든 기관들은 그분께서 결정하여 주신 법칙이 없이는 각자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주의 그 어느 것도, 우주에서 가장 큰 행성에서부터 사막의 가장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 인간이 순응하는 이 총체적 신성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이 신성법칙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그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는 누구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은 우주의 종교라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절대자의 신성법칙에 대한 거역 없는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이기 때문이다. 태양과 달과 지구 모두가 그분께 아무런 거역 없이 순종하고 있다. 공기와 물과 빛과 어둠과 열 모두가 아무런 거역 없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 나무와 돌과 동물들 모두가 아무런 거역 없이 그분께 순응하고 있다. 하물며 자신의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도, 그분의 존재와 징표를 부정하는 인간도,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사신을 두어 그분에게 비유하는 인간까지도 그분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였다면 이제 인간을 들여다보자. 두 가지 요소가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 알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이다. 창조주 알라 하나님께 순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가까이 하려하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선행과 정직을 선호하는 일,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거짓과 위선, 불의와 억압과 악행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고, 한편으로는 재물을 좋아하고 가족과 아이를 사랑하며,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성생활을 하고 싶고, 그 밖에

육신의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본능이 있다.

둘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도들과 성서들을 보내 그것으로 진리와 부정을 가리고, 그것으로 안내의 길과 방황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정신력과 이해력을 주시어 그것으로, 그리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활용하도록 하셨다. 그가 진리요 복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싶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가 사악과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싶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는 알라 하나님께 순응하는 성품을 가졌으며, 무엇이든 조금도 이탈하는 것 없이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자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인으로 무슬림이 되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이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라.】[192)]

그 결과 우리는 두 단체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만이 홀로 경배 받을 대상자이고, 자발적으로 일생동안 그분의 신법을 따르는 인간이 있다. 그분이 제시한 길을 이탈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두고서 그의 이슬람이 완벽하고 그의 지식이 건전한 온전한 무슬림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192) (76:3)

사도들을 보내 지식을 주시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알라 하나님을 알고, 그의 창조주를 알고, 그의 조물주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그는 먼저 그의 건전한 이성으로 생각한 후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지식과 이해의 능력을 주신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된다. 그의 혀는 진리만을 말하게 된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절대자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그의 생애에 진리 외에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간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알라 하나님의 신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우주의 다른 피조물 사이에는 친숙해지고 우호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숭배하고 찬미하며 찬양하고 있는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모든 인간을 위해 알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두셨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아니했는가!

불신의 실상

이와는 반대로 알라 하나님에 대한 순응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 일생동안 그분의 섭리에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그가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고 있다거나 순응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는 주님을 몰랐고 신법도 믿지 아니했으며 사도들도 따르지 아니했다. 자신을 누가 창조했는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알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능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경배할 가치가 없다고 자만을 부렸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리와 행위의 자유도 그분의 신법을 생활에 적용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신법을 거부했다. 사신을 두어 알라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기도 하고 그분의 일위일체의 신관을 가리키는 그분의 증표들도 믿기를 거부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불신자(Kafir)라 부른다.

불신(Kufr)이란 단어의 의미는 덮어서 감춘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람을 카피르(Kafir)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본성을 무지와 오만함으로 덮어 감추어버렸기 때문이다. 우주의 본질과 자기 자신의 본성이 무지로 덮어져 숨겨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지능을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어 자신의 본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자신도 창조주를 어느 정도나 불신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서 가능한 빨리 나의 영혼과 육신으로부터 불신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193]

이슬람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쉬운 일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쉬운 것을 바라는 자에게 더 쉽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이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종교이고, 알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이며 알라 하나님을 위한 종교이다.

【하늘과 땅의 만물이 싫든 좋든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노라…】[194]

【알라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이라…】[195]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논쟁한다면 나는 알라 하나님께 귀의하였으며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고 말하라…】[196]

사도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슬람은 당신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당신의 얼굴은 알라 하나님을 지향하며 정해진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입니다.〕[197]

한 남자가 사도에게 이슬람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다.

---

193) Mabadiu Al-Islam, pp.3-4.

194) (3:83)

195) (3:19)

196) (3:20)

197) Ahmad fi Musnadihi vol.5, p.3; Ibn Hibban vol.1, p.377.

〔당신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그의 혀와 두 손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슬람이 가장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믿음(Iman)이라고 하였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알라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죽은 후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198] 이렇게도 표현했다.

〔이슬람이란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언한 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메카로 순례를 가는 것입니다〕[199]

〔무슬림은 그의 혀와 두 손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200]

이 종교, 즉 이슬람 종교는 처음 세대부터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알라 하나님께서 수락하시는 유일한 종교다. 왜냐하면 예언자 모두가 알라 하나님 한분만을 믿는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이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도 그랬다.

【그들에게 노아의 얘기를 들려주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와 머물며 너희에게 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함에 너희가 거만해 한다 하여도 나는 알라 하나님께 의지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무슬림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받

---

198) Ahmad fi Musnadihi vol.4, p.114; Al-Haithami, Al-Mujjam'a vol.1, p.59; Ahmad and Al-Tabarani, Al-Kabir binahwuhu & Rijaluhu Thuqat; Muhammad ibn Abdulwahhab, Fadl Al-Islam, p.8.

199) Muslim fi Kitab Al-Iman, Hadith 8.

200) Al-Bukhari fi Kitab Al-Iman; Muslim td Kitab Al-Iman, Hadith 39.

왔노라.】 201)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온 누리의 주님께 복종한다고 하였더라.】 202)

【모세 이르되 백성이여 너희가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분에게 의탁하라.】 203)

【보라! 내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사도를 믿으라 하니, 믿나이다 그리고 저희는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였더라.】 204)

이슬람 종교는 법과 교리와 모든 규범을 그분의 말씀인 꾸란(Quran)과 사도의 전통(Sunnah)에 기원을 두고 있다.

---

201) (10:71-72)

202) (2:131)

203) (10:84)

204) Al-Tdmiriyah, p.109-110; (5:111)

이슬람의 뿌리와 출처

폐기된 종교 또는 인위적 민족종교들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옛날에 기록되어 그들에게 전수된 책들을 신성시 하는 버릇이 있었다. 기록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번역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며, 어느 시대에 기록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책들을 신성시 했던 것이다. 사실 그 책들은 빈약하고 결점이 많으며 취향과 생각에 따라 그리고 많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꾸란은 어떠한가! 이 점에 있어서 이 책은 다른 모든 책들과 다르다. 신성한 계시서 꾸란과 사도 무함마드의 전통이라는 두 가지 출처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두 출처에 대한 요점을 소개한다.

1. 위대한 꾸란

이미 앞 장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의 종교이며 그것을 위해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를 통해 꾸란을 내리시면서 그것이 의로운 자들을 위한 복음이 되고, 그것이 무슬림들을 위한 헌법이 되며, 그것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그것이 영광과 성공의 등불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근본 원리를 모두 담고 있다.[205] 꾸란은 최초로 계시된 성서가 아니며 무함마드가 최초의 사도도 아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흐프(Suhuf)라는 책을 내리셨고, 모세에게는 토라(Torah)를, 다윗에게는 시편(Jabur)을, 그리고 예수에게는 복음서(Injil)를 내리셨다. 이 책들 모두는 알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내리신 성서들이다. 그러나 이 책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분실되어 사라져버리고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꾸란은 어떤가! 알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앞서 온 성서들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것들을 폐기하는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내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추인하고 증거하는 성서를 내리나니…】[206]

그것을 모든 것의 설명서로 내리셨다.

【…내가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라…】[207]

그것을 모든 인류의 복음과 자비의 안내서로 내리셨다.

【 …이제 너희에게 주님의 증표와 복음과 은혜가 도래하였

205) Mustafa Al-Siba'i, Al-Sunnah wa Maka natuha fi Al-Tashri'i Al-Islami, p.376.

206) (5:48)

207) (16:89)

노라…】 208)

정의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로 내리셨다.

【실로 꾸란은 가장 정의롭고 바른 것으로 인도하니라 …】 209)

꾸란은 인간을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바른 길로 안내한다. 꾸란이 어떻게 계시되었고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책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을 위해 정화할 것이다.

【실로 꾸란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믿음의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하강하여 그대 마음에 내리고 그것으로 경고하도록 하였노라.】 210)

꾸란을 내리신 분은 만유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실체는 가브리엘 천사이며, 꾸란을 전달받은 사람은 무함마드이다.
이 꾸란은 무함마드를 위한 영원한 기적이다. 부활의 그날까지 함께 남아 있을 증표들을 담고 있다. 선임 예언자들의 증표들과 기적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종료되었지만 이 꾸란은 알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증표로 두셨다. 꾸란은 다방면에 걸치는 증

---

208) (6:157)

209) (17:9)

210) (26:192-194)

거요 눈부신 증표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 또는 열장 또는 단 한 장의 수라(Surah)만이라도 이르게 하여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마디의 철자나 단어도 이르게 하지 못했다. 그것을 받은 공동체는 웅변과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

【그가 그것을 꾸며내었다고 말하더뇨?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정 진실한 자들이라면 그와 같은 말씀 한 장이라도 이르게 하여보라. 그리고 너희의 힘을 다하여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구원하여보라.】 211)

꾸란이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성서라는 다른 증거는 꾸란이 지나간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안에 예정된 사건들이 사실 그대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신성한 계시서라는 증거는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알지 못했고 꾸란과 유사한 어떤 것에 관해서도 전해들은 적이 없었다.

【일러 가로되 만일 알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는 그대에게 그것을 낭송하지 아니 했으리라 또한 그분은 그대에게 그것을 알리려 하지도 아니 하였으리라. 내가 그대와 함께 얼마나 있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212)

오히려 그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쓰는 것도 모르는 무학

---

211) (10:38)

212) (10:16)

자였고, 꾸란과 같은 것을 꾸며낼 수 있는 선생이나 사람을 찾아가본 적도 없었다.

【그대는 이 성서가 계시되기 전에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대의 오른 손으로 쓸 수도 없었거늘 만일 그대가 그럴 수 있었다면 불신자들은 그것을 의심하였으리라.】 213)

유대교의 랍비와 기독교의 주교가 토라와 복음서에 묘사된 이 무학자의 남자를 찾아와 저들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쌍방이 만족할만한 중재를 요구하였다. 그에 관한 소식이 토라와 복음서에 묘사되어 있다고 꾸란은 언급하고 있다.

【저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저들은 저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그분은 저들에게 옳은 것을 촉구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214)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무함마드에게 요구한 것이 소개되고 있다.

【성서의 백성들이 그대에게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성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나…】 215)

---

213) (29:48)

214) (7:157)

215) (4:153)

【저들이 성령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으리라…】 216)

【저들이 그대에게 줄까르나인 왕에 관하여 질문할 것이라…】 217)

【실로 이 꾸란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대다수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으며…】 218)

아브라함 필립스 주교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꾸란을 손상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오히려 꾸란이 증거와 증표들로서 그를 압도하여 버렸다. 결국 그는 그의 시도를 포기하고 창조주에게 항복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219)

한 무슬림으로부터 꾸란 의미의 번역서를 선물로 받은 미국의 제프리 랑(Jeffrey Lang) 박사는 이 꾸란과 대화를 나누고 이 꾸란에서 해답을 얻음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영혼 사이에 놓였던 장애물들이 말끔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꾸란을 계시하신 분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220)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꾸란을 계시한 분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알라 하나님이 아닌가!

---

216) (17:85)

217) (18:83)

218) (27:76)

219) Ibrahim Khalil Ahmad, Al-Mustashriqun wal-Mubashshirun fi Al-'Alam Al-'Arabi wal-Islami.

220) Jeffrey Lang, Struggle in the Cause of Faith(Arabic Translation by Al-Mundhir Al-'Absi, p.34.

【그분이 창조한 것을 그분이 모르실리 있겠느뇨? 실로 그분은 모든 세세한 것도 다 알고 계시며 통찰하시는 분이시라.】 221)

그가 꾸란 의미의 번역서를 읽은 것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원인이 되고 본인이 인용한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꾸란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 안에는 믿음의 핵심과 교리와 규범과 사람간의 상호거래와 예절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빠뜨림 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 성서에는 빠뜨린 것이 없노라…】 222)

그 안에는 일위일체의 알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있고 그분의 이름들과 속성들과 사역들이 언급되어 있다. 꾸란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소개한 것들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활과 보상 그리고 업적의 평가를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나간 세대들의 이야기와 그 세대들이 현세에서 받은 징벌과 고통 그리고 내세에 가서 받게 될 징벌을 언급하고 있다.

꾸란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많은 증거와 증표들을 담고 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연령을 충족시켜준다. 그 안에서 여러 학자들과 연구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사례만 언급하겠다.

【두 바다를 각각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이쪽은 향긋하고

---

221) (67:14)

222) (6:38)

달콤하게 하사 다른 쪽은 짭짤하고 쓴 맛을 나게 하여 그 둘 사이에 장벽을 두어 분리하신 분도 알라 하나님이시라.】[223)]

【저들의 행위는 넓고 깊은 바다 속의 암흑과도 같노라. 파도가 그 위를 덮으니 또 파도가 그 위를 덮으며 구름이 그 위에 더하매 어둠은 아래로 겹쳐 있더라. 그가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볼 수 없나니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 자 그에게는 빛이 없노라.】[224)]

사도 무함마드는 바다를 여행해본 적도 없었고 그 시대에는 바다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다. 알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무함마드에게 그 지식과 자료를 주었겠는가!

【실로 알라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 그를 한 방울의 정액으로써 안정된 곳에 두었으며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 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 만들고 그 살로써 뼈를 만들었으며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을 만들었나니 가장 훌륭하신 창조주 알라 하나님이여 홀로 축복 받으소서.】[225)]

최근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태아의 창조과정의 단계에 대하여 이처럼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 알라 하나님께 있나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나라 그분은 땅위에 있는 것과

---

223) (25:53)
224) (24:40)
225) (23:12-14)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 속에 있는 곡식 한 알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도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226)]

인간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물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관하여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한그루의 식물이나 한 마리의 곤충을 관찰하여 그들이 발견한 것을 기록할 때는, 그들이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하여 감탄을 한다.

모리스 부카일(Maurice Bucaile) 프랑스 학자는 토라와 복음서와 꾸란을 비교연구하고, 하늘과 땅과 인간 창조에 관한 현대과학의 발견을 비교연구하고서 꾸란에 언급된 것과 현대과학의 발견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토라와 복음서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 동물 창조에 관한 오류의 정보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227)]

2. 예언자의 전통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내리셨다. 그리고 꾸란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것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예언자의 전통, 즉 순나(Sunnah)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꾸란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도 주어졌

226) (6:59)

227) Maurice Bucaile, The Torah, the Bible and the Quran in the light of modern science, pp.133-283. 그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학자다.

습니다.] 228)

알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란의 보편적 의미와 특별한 의미 해석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대에게 꾸란을 보냈나니 이것으로 무엇이 계시되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이라.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라.】 229)

순나(Sunnah)는 이슬람의 두 번째 출처다. 말씀과 행위와 묵인과 품성에 관한 모든 것이 예언자로부터 비롯되었고 계보가 예언자까지 소급해 올라간다. 그것 역시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무함마드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라. 그는 힘 있는 자로부터 전달받았노라.】 230)

예언자는 명령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단순한 경고자에 지나지 않느니라.】 231)

순나(Sunnah)란 규범과 교리와 신앙생활과 상호거래와 예절

---

228) Ahmad fi Musnadihi vol.4, p.131; Abu Dawood fi Sunanihi fi Kitab Al-Sunnah, Hadith 4604 vol.4, p.200.

229) (16:44)

230) (53:3-5)

231) (46:9)

등 이슬람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도는 명령받은 대로 이슬람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처럼 행하면 된다고 하였다.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시오." 232) 알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행동과 언어생활에서 무함마드를 본받아야 자신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훌륭한 모범이라. 이는 알라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 233)

예언자를 추종한 훌륭한 교우들은 예언자의 언행(言行)을 다음 세대에 전했고, 또 이들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 그런 후 그것이 한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었다. 순나를 전한 자들의 상황도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나 순나를 전해 받은 자들의 상황도 엄격한 검증을 받았다. 전달자는 사도까지 연계가 있어야 한다.234) 전언자 모두는 신뢰성, 정의, 정직성, 믿음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순나는 이슬람을 수행하는 실천규범이면서도 꾸란의 설명서요 꾸란 절의 해설서이며 전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총설서이다. 예언자는 자신에게 계시된 것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언행으로 설명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

232) Al-Bukhari fi Kitab Al-Azan, Chapter 18.

233) (33:21)

234) 순나 전언의 정확성을 위해 이러한 독특한 학문적 접근방법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 ' ilmu Al-Jarh & Al-Ta'dil' 학문과 'ilmu Mustalah Al-Hadith' 학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학문은 이슬람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순나가 꾸란에 없는 일부 규범과 법해석에 대한 독립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꾸란과 순나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 종교에서 최우선적인 기본사항이며, 꾸란과 순나의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도 반드시 뒤따라야하며, 금지사항 또한 지켜져야 하고, 꾸란과 순나가 전하고 있는 모든 소식도 인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안에 담겨져 있는 알라 하나님의 명칭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속성들과 사역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약속된 것과 불신자들에게 경고된 것들도 믿음의 대상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노라.】 235)

【…그리고 사도가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수락하되 그가 금기한 것은 단념하라…】 236)

지금까지 이슬람 종교의 출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이슬람(Islam), 믿음(Iman), 온전한 신앙생활(Ihsan)에 관한 단계를 요약 설명할 것이다.

---

235) (4:65)

236) (59:7)

제 1 단계 : 이슬람[237)]

이슬람은 다섯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신앙고백과 예배와 이슬람세 납부와 메카 성지순례다.

1. 신앙고백(Shihadah)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La ilaha illa Allah;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Muhammad Rasul Alllah; 무함마둔 라수룰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하늘과 땅에서 경배 받을 대상이 알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분만이 진리의 알라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모두가 허위라는 의미다.[238)]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

---

237) Shayikh Muhammad ibn Abulwahhab의 Kitab Al-Tawhid, and Al-Usul Al-Thalathah, and Adab Al-Mashyi ila Al-Salah 참조, 또 는 Abdurahman Al-Umar의 Din Al-Haqq 참조. 또는 Muhammad ibn Ali Al-'arfaj의 Ma la budda min Ma'rifatih 'an Al-Islam 참조. 또는 Abdullah ibn Jarullah Al-Jarullah의 Arkan Al-Islam 참조. 학생단체가 편집하고 Shayikh Abdullah Al-Jibrin 이 감수한 Kitab Sharh Arkan Al-Islam wal-Iman 참조.

238) Din Al-Haqq, p.38.

는 뜻이다. 다음의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신앙고백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믿음과 지식과 확신과 사랑으로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둘째는 알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만일 신앙고백을 한 자가 경배의 대상자로서 알라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고백은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239]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선서하는 것은 그가 촉구한 것에 순응하고, 그가 전한 모든 소식들을 확신하고, 그가 금기하거나 경고한 것을 피하고, 그가 제정한 규범에 따라 알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다. 또한 무함마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사도이며, 경배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에 불과함으로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거짓말 하지 않는 사도라는 뜻이지만 그에게 순응하고 그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둘 부분이다. 그에게 순응하는 자는 누구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는 자는 모두다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뜻도 있다. 또 명심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믿음, 알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경배의식, 법과 규범의 제정, 윤리와 도덕, 가족체계, 법제정, 금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리적용도 사도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알라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전한 사도이기 때문이다.[240]

---

239) Qurrat Al-'uyun Al-Muwahhidin, p.60.

240) Din Al-Haqq, p.51052.

2. 예배[241)]

예배(Salah)는 이슬람을 지탱하고 있는 두 번째 골격이며 기둥이다. 인간과 주님과의 연결고리이자 매개체가 바로 예배이다. 하루 다섯 번씩 예배가 반복되면서 매번의 예배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고 순화된다. 예배는 죄악과 비행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준다. 아침이 되어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사의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엎드려 그분의 절대적 권리인 예배를 하는 일이다. 그런 후 잠시 일어섰다가 다시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 다섯 번 반복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입고 있는 옷과 예배장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여러 무슬림 형제들과 어울려 집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얼굴은 메카에 있는 카으바(Ka'bah) 신전을 향한다. 예배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배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온 몸으로 당신을 찬미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혀를 통한 입으로, 두 손에 의한 행동으로, 두 발로, 머리와 오감과 육신의 모든 기관으로 당신을 찬양하라 하셨다. 몸의 각 기관마다 당신을 경배해야 할 몫과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오감과 사지도 각자의 임무가 있고, 마음도 임무가 있다. 예배는 알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행위다. 그분의 권리를 증언하고, 꾸란을 읽고, 주

---

241) Shayikh Abdulaziz ibn Baz의 Kaifiyat Salat Al-Nabi 참조.

님 앞에 서서,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 가까이 있게 하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앉아서, 복종과 겸양의 초라한 모습으로 위대한 절대자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분의 위대함으로 마음은 부서지고, 몸은 초라해지며, 사지가 떨리는 것이 예배다.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사도 무함마드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복을 간구하는 것으로 예배를 종료한다.[242)]

3. 이슬람세[243)]

이슬람세(Zakah)는 이슬람을 지탱하고 있는 세 번째 골격이며 기둥이다. 부유한 무슬림은 반드시 그의 재산에서 이슬람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등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그것은 대단히 적은 량이다.

무슬림은 수혜자를 위해 이슬람세를 기꺼이 납부해야 한다. 그것을 받는 수혜자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는 수혜자를 위해서 이슬람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한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또는 사회적 평판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심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슬람세는 축복을 가져다준다. 가난한 사람과 불우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준다. 구걸의 행위를 미리 막아 그런 행위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차단하여 준

---

242) Miftah Dar Al-Sa'adah vol.2, p.384.

243) Shayikh Abdulaziz ibn Baz의 Risalatani fi Al-Zakat wa Al-Siyam 참조.

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요 태만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른체한다면 그들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슬람세 납부는 사랑이요 자비이며 아량이다. 인색함과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이슬람세 납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때 사회는 절대적 빈곤이 없고, 부채에 시달림이 없으며, 여비가 떨어져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4. 단식[244]

단식(Siyam)은 라마단 달 새벽 동이 틀 무렵부터 태양이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생활도 삼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금욕과 자제도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종의 신앙이다. 그러나 환자, 여행자, 임신한 여성과 젖을 먹이는 유모, 생리중이거나 해산 후의 여성은 단식을 하지 않는다. 이들 각자에게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범이 있다.

라마단 달에 무슬림은 금욕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동물적인 속성에서 알라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의 속성으로 지향시킨다. 단식하는 무슬림은 마치 자신이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다.

단식은 마음의 생명수이다. 이 세상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알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을 갈망하게 만든다. 부자로 하여금 빈자를 생각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

244) Shayikh Abdulaziz ibn Baz의 Risalatani fi Al-Zakat wa Al-Siyam 참조.

과 형편을 이해하게 한다. 알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를 하게 한다.

단식은 영혼을 정화하고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한 달 동안의 단식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생활에서도, 좋을 때나 어려울 때에도 알게 모르게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재인식시키고 당신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당신에 대한 믿음과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당신께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당신 앞에 서서 인간이 행한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245]

5. 성지순례[246]

성지순례란 메카에 있는 신성한 알라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순례는 몸과 정신이 건전하고 순례할 나이가 된 자로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사항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메카에 오갈 수 있는 왕복여비와 그곳 체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족의 주거비와 생활비가 충분해야 한다. 메카로 가는 여정이 안전해야 하고 집을 비우는 동안 가족이 안전해야 한다. 이처럼 능력과 조건을 갖춘 무슬림은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한다.

순례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가

---

245) Miftah Dar Al-Sa'ada vol.2, 384.

246) Majmu' a min Al-'ulama, Dalil Al-Hajj wal-Mu'tamar, 또는 Shayikh Abdulaziz ibn Baz의 Al-Tahqiq wal-Idaha li-Kathir min Masail Al-Hajj wal-Mu'tamar 참조.

될 수 있는 모든 언행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 메카에 도착한 후 의식을 행하는 각 장소에 이를 때마다 알라 하나님을 위한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카으바 신전을 비롯한 그 밖의 순례의 의식을 행하는 모든 장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알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은 인간에게 유익하다거나 해를 끼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알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의 순례를 명령하지 아니했다면 그곳으로 순례를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

순례자는 이자르(Izar)라고 하는 하얀 천의 순례복을 위에 두르고, 리다아(Ridaa)라고 하는 하얀 천은 아래를 가린다. 순례자 모두가 동일한 색깔의 순례복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의식으로 한 분의 주님만을 경배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부자와 빈자, 백인과 흑인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의식을 행한다. 모두가 알라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요 모두가 동일한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무슬림 보다 우월하지 않고, 무슬림이 비무슬림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나고 못난 것, 우월하고 열등한 것은 신앙심과 선행에 의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순례를 통해서 무슬림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호협력의 정신을 실천한다. 순례의식을 수행하면서 부활의 날을 되새기고 한 장소에서 모두의 업적을 평가할 심판의 날을 되새긴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맞을 준비를 한다.[247]

---

247) op.cit. vol.2, p.385; Din Al-Haqq, p.67 참조.

이슬람의 신앙[248)]

알라 하나님을 의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한다. 알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알라 하나님은 경배를 받을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종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인간은 현세의 생활에서도 알라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그분의 법과 사도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 위대한 법을 제정하셨다. 일위일체의 신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고, 단식을 실천하고, 성지순례를 하라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내리신 법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슬람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이슬람 신앙은 보다 포괄적이다. 즉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또는 모르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말한다. 알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신앙이다. 그분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가짐의 습관 하나도 경배이다. 알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도 경배다. 알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시장에서, 사무실에서의 훌륭한 품행도 신앙이다. 알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나쁜 일을 제지하고, 약자를 돕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얻고, 아내와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불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로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박해받고 있는 자를 돕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신

---

248) Shayikh Al-Islam ibn Tayimiyah, Al-'ubudiyah 참조.

앙이다. 알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신앙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 중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마음이 건전했다면, 그것도 신앙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켰다 해도 방법이 합법적이면 그것은 자선의 일종이다.〕

사도의 교우들이 질문을 하였다.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킨 자에게도 보상이 있습니까?" 이에 사도가 대답했다.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오. 만일 그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켰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면 보상이 있을 것이요.〕 249)

사도가 말했다.

〔모든 무슬림에게는 자선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가 질문을 받았다.

"자선할 것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가 대답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두 손으로 일한 것으로 자선을 베풀면 됩니다.〕

다시 질문을 받았다.

"일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가 대답했다.

〔슬픔에 찬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

249) Muslim, fi Kitab Al-Zakah, Hadith 1006.

또 질문을 받았다.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가 대답했다.

〔좋은 일을 권장합니다.〕

또 한번 질문을 받았다.

"그렇게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선입니다.〕 [250)]

---

250) Bukhari fi Kitab Al-Zakah, Chapter 29; Muslim, fi Kitab Al-Zakah, Hadith 1108.

제 2 단계 : 믿 음[251)]

믿음은 여섯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에 대한 믿음, 사도들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운명에 대한 믿음이다.

1.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알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경배 대상자로서 신성의 유일성을 믿는 것이다. 그분 외에는 경배의 대상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명칭들과 속성들을 믿는 것이다. 가장 좋은 이름과 완벽하고 가장 고귀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은 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에 비유될 수

251) Muhammad ibn Salih Al-Uthaymin, Sharh Usul Al-Iman or 'aqidah Ahl Al-Sunnah wal-Jama'ah, Shayikh Islam Ibn Tayimiyah, Al-Iman, 참조.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거늘 그분을 섬김에 인내하라. 너희는 그분에게 비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알고 있느뇨?】 252)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은 땅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속에 있는 곡식 한 알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도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253)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이 계시면서 그것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피조물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그것들이 지껄이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것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것들의 모든 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로부터 권위를 거두어 가시며,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254)

알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1)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

252) (19:65)

253) (6:59)

254) Aqidah Ahl Al-Sunnah wal-Jama'ah, p.7, 11.

그분이 금지한 것을 자제하는 인간이 되게 하여 준다. 이렇게만 된다면 인간은 현세와 내세에서 온전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2)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음속에 자존심과 존엄성을 심어준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이어서 그분 외에는 유익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해를 끼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알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하여주고, 그분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분 외에는 희망을 갖지 않게 하고,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여주기 때문이다.

3)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마음속에 겸허의 미덕을 심어준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가 받은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사탄이 그를 유혹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거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진다.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다.

4) 알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분께서 기뻐하는 건전한 일이 아니면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여 처형당했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여러 신이 있으며 그 신들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준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해를 끼치지도 못한다.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날 알라 하나님을 만나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5)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용기를 불어넣고, 인내심을 심어주며, 이 세상에서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여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준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땅에 박혀 하늘을 받치고 있는 산들처럼 매사에 알라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는 인간을 만들어준다.[255)]

2.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

알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당신에게 복종하는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단지 존경받은 종들에 불과하니라. 그들은 알라 하나님 말씀 이전에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자를 제외하고는 중재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노라.】 [256)]

---

255) Aqidah Ahl Sunnah wal-Jama'a, p.33; Mabadiu Al-Islam, p.80, 84.
256) (21:26-28)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하며 그분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 하니라.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도 기력이 쇠퇴하지 않노라.】 257)

알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불가시계의 영역에 두셨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천사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당신의 일부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에게는 그들을 보여주셨다.

천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한다. 가브리엘 천사는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사도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천사가 있고, 여성의 자궁에 임신을 시키는 천사가 있고, 인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인간의 업적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각자의 인간에게는 두 명사의 천사가 항상 함께한다.

【두 명의 천사가 임명되어 우측과 좌측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고 있노라. 인간이 말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노라.】 258)

천사들의 존재를 믿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1) 무슬림의 믿음을 다신론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준다.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이 우주를 어떤 환상적인 피조물들이 공동관리

---

257) (21:19-20)

258) (50:17-18)

하고 있다는 망상을 제거하여 주기 때문이다.

2)천사들은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알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명령대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를 숭배하거나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의존해서는 안된다.

3. 성서들에 대한 믿음

알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내려진 성서들을 믿는 것이다. 그 책들 안에 진리가 담겨있고 그 책들이 진리의 길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나는 분명한 증표와 더불어 사도들을 보냈으며 또 사람들이 공평하게 스스로를 인도할 성서와 균형을 함께 보냈노라…】 259)

여러 권의 성서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수흐프(Suhfu)가 있고, 모세에게 주어진 오경(Taurat)이 있고, 다윗에게 내려진 시편(Zabur)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복음서(Injil)가 있다.

이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계시한 것으로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한 법이 담겨져 있는 성서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알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성서들의 원서가 모두 소멸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의

---

259) (57:25)

성서 수흐프는 이름만 꾸란에 남아 있을 뿐 남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시편은 그 이름과 의미만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에게 남아 있을 뿐 문자는 완전히 분실되고, 내용은 크게 왜곡되고, 많이 대체되고, 없던 것이 삽입되어 본래의 내용에서 멀어져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과도 연계되어 있다. 구약성경을 보면 사십 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와는 단지 다섯 권 밖에 연관이 없다.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신약성경은 어떤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한편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꾸란은 어떤가! 알라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현재까지 원본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는가! 단어 하나 변경된 것도 없고, 의미가 대체된 것도 없다. 사람의 생각이 삽입된 것도 없고, 문장 하나 삭제된 것 없이 문자(文字)와 의미(意味) 모두가 최초의 것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고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꾸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성서들과 다르다.

1) 이전 성서들의 본래 문자는 완전히 소실되고 그것의 의미만 남았다. 그 의미도 크게 왜곡되고, 많이 대체되고, 없던 것이 삽입되어 본래의 내용에서 멀어져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과도 연계되어 있다. 많은 설명과 여러 주석들과 논평들과 해석들이 첨가되어 있다. 신의 계시와 이성과 신의 섭리에 모순 되는 것들이 추가되어 있다.

꾸란은 어떤가! 알라 하나님의 보호아래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에게 내린 철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지금까지 보

존되고 있지 않는가! 문자와 의미 모두가 하나도 변질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꾸란이 하나의 결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슬림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사도의 전기나, 사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교우들의 전기나, 꾸란 해설이나, 신앙생활 규범이나, 일상생활의 거래 등 그 어떤 것도 꾸란에 혼합된 것이 없다.

2) 이전 성서들의 경우, 정확한 역사적 계보의 정통성이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 일부 성서는,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 계보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제외되고 관련이 없는 자와 연계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꾸란의 계보는 어떤가! 정확한 계보의 연계성을 갖고, 암기와 암송과 기록으로 전해졌다. 각 시대 각 나라에는 꾸란의 전 분량을 암기하는 수천 명의 무슬림들과 기록된 수천 권의 꾸란이 있었다. 암기와 기록으로 동시에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암기와 기록된 것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 까지 꾸란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책도 전 분량이 암기되고 암송된 전례가 없었다. 이 점 또한 이 세상 여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슬람세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꾸란이 보존되어 온 과정은 이렇다. 학생은 쉐이크(Sheikh)라 불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꾸란을 암기한다. 그 선생님은 자신에게 꾸란 암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고 이 선생님은 또 자신에게 꾸란 암기를 가르친 스승이 있다. 이러한 연쇄 고리가 사도 무함마드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꾸란을 암기한 제자에게 이자자(Ijazah)라고 하는 꾸란 암기 증명서를 준다. 이 증명

서에서 선생님은 자신을 가르쳐 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듯 꾸란 암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연결 고리가 알라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까지 연결되면서 꾸란이 암기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꾸란의 각 장(Surah)과 각 장의 절(Ayah)이 어디서 그리고 언제 사도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전언자들의 계보에 관한 정통성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현존하고 있다.

3) 이전 성서들의 계시 언어는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되고 말았다. 이 시대의 어느 누구도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극히 소수만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꾸란의 계시 언어는 어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지구촌 각 지역에서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지 않는가! 꾸란의 언어뿐만 아니라 꾸란의 의미까지 가르치고 있는 스승들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4) 이전의 성서들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민족을 위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성서들은 그 시대, 그 민족과 관련된 특정 규범들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전 인류를 위한 성서로는 부적절한 특성을 갖고 있다.

꾸란은 어떤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특정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적합한 규범들과 타인과의 상호거래에 필요한 예절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계시 언어가 없는 성서들 안에 인류를 위한 알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계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변질로 인하여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한 알라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인 계시 언어는 추가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점의 결함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계시 언어로 기록된 사본들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어야 한다. 알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계시 언어를 말하고, 읽고 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는 성서는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에게 내린 꾸란 밖에 없다.

이전 성서들에 대한 증거가 되고 왜곡되기 전의 내용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유일한 성서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의 치료약이 되고 자비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린 축복으로 가득 찬 성서이거늘 이것을 따르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라】 260)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실로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위해 온 사도이니라.】 261)

---

260) (6:155)

261) (7:158). Al-Aqidah Al-Sahiha, p.17; Aqidah Ahl Al-Sunnah wal-Jama' ah, p.22; Mabadiu Al-Islam, p.89 참조.

4. 사도들에 대한 믿음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불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알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알라 하나님만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노라…】 262)

【사도들을 보냄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인간들이 사도들이 온 이후로는 알라 하나님께 논쟁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263)

사도들은 여러 사람이다. 노아가 첫 번째 사도였고 무함마드가 마지막 사도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다윗, 요한, 자카리아, 살레, 무함마드 등 알라 하나님께서 언급한 사도들이 있고, 언급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있다.

【그대에게 언급한 사도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있노라. 모세에게는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계셨노라.】 264)

사도들 모두는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다. 이들은

---

262) (16:36)

263) (4:165)

264) (4:164)

주권과 신성의 속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들도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첫 번째 사도인 노아와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와 관련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알라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 아니하며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265)

【일러 가로되 내가 알라 하나님의 보물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온 천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266)

【일러 가로되 알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해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 않노라…】 267)

단지 존경받는 예언자들에 불과할 뿐이다. 알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당신의 종이라는 점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뿐이다.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

265) (11:31)
266) (6:50)
267) (7:188)

【실로 알라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이라…】[268)]

모든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하나이지만 그들의 법은 다르다.

【…내가 너희 각자에게 법과 규범을 주었노라…】[269)]

이 모든 것의 최종 법은 무함마드의 법이다. 이 법이 이전 예언자들의 모든 법을 폐기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가 마지막이며, 그가 마지막 사도다.

그들 중에 한 예언자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예언자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 중에 한 예언자라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예언자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와 모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알라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종말을 믿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예언자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예언자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예언자마다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사도들을 믿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270)]

【나의 사도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었노라.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랬노라. 그들 모두는 알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을 믿었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사도들을 차별

---

268) (3:19)

269) (5:48)

270) Al-Aqidah Al-Sahiha, p.17; Aqidah Ahl Al-Sunnah wal-Jama'ah, p.25.

하지 아니하며…】 271)

【알라 하나님과 사도들을 불신하며 알라 하나님과 사도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고 하며 중간의 길을 취하려 하더라.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들이거늘 나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 치욕스러운 벌을 준비하여 놓았노라.】 272)

5. 종말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세에서 징벌을 피했던 부정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은 내세에 가서도 징벌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현세에서 선을 행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했던 의인들은 내세에 가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인간은 계속 죽어갈 것이다. 한 세대가 떠나면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또 다음 세대가 온다. 알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소멸될 그 순간까지 인간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후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어느 날을 택하시어, 모든 인간을 부활시키고,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집합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잘못했던 일과,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선행

---

271) (2:285)

272) (4:150-151)

과 악행, 살아생전에 모아둔 재산 등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신앙인들은 천국으로 안내를 받을 것이요 불신자들은 불지옥으로 행진하여 갈 것이다.

천국(Jannah)이란 무엇인가?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었던 신앙인들을 준비하여 두신 곳이다. 그곳에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에는 100단계가 있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종의 정도에 따라 신앙인들이 사는 곳은 다르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들이 사는 왕국의 10배에 해당된다.

불지옥은 알라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을 위해 가공할만한 징벌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온갖 종류의 무서운 징벌들이 준비되어 있다.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징벌들이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 살짝 보기만 해도 모두가 죽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징벌들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전 지식으로 모든 인간이 할 말과 행위를 알고 계신다. 착한 마음과 선행, 나쁜 마음과 악행, 몰래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 각 인간에게 배정된 두 천사 중에서 한 천사는 착한 마음과 선행을 기록하고, 다른 천사는 악한 마음과 악행을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모두 기록한다.

【인간이 말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며】 273)

인간의 모든 행위도 한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부활의 날 그

---

273) (50:18)

인간에게 주어진다.

【행위의 기록이 제시될 때 이 기록이 도대체 무엇이뇨 작은 것도 큰 것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부다 기록되어 있으니 라고 기록된 것이 두려워 말하는 죄인들을 그대가 보게 되리라. 이 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리니 실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 하시노라.】 274)

인간은 자신의 기록을 읽고 그 안의 내용을 부정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위를 부정한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알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와, 눈과, 손과, 발과, 피부에 까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그 인간이 말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부에게, 너희는 왜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느냐고 말하자, 그것들이 말하기를, 만물에 화술을 주신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셨소. 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알라 하나님이시거늘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였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귀와 눈과 피부가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요. 아니, 여러분은 스스로가 저지른 일들을 알라 하나님께서 모르리라 생각하였을 뿐이라.】 275)

---

274) (18:49)

275) (41:21-22)

종말에 대한 믿음은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가르친 부활의 날을 믿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의 증표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이니라. 그대는 불모의 대지를 보리라. 그러나 알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니 생명이 싹트고 수확이 증가하지 않느뇨? 실로 대지를 소생시키는 분은 죽은 자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 진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276)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알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라.】277)

신성 메시지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없이 창조한 것이 없고 아무런 쓸모없이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신다. 지능이 가장 허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그가 존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쓸모없이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는가!

【그러면 너희는 내가 목적 없이 너희를 창조하였다고 생각하느뇨?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뇨?】278)

---

276) (41:41:39)

277) (46:33)

278) (23:115)

【나는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만물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였느니라. 이는 불신자들의 그릇된 생각이라.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벌이 있으리라.】 279)

현명한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과 이성이 증거하고, 건전한 본성이 동의하고 있다. 인간이 부활의 날을 믿게 될 때 그는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알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또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대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사람들을 학대할 때 부활의 날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업적 평가에 따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선에 대한 보상은 선의 보상을 받고 악에 대한 대가는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요. 티끌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280)

언제 부활의 날이 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날은 어떤 예언자에게도 또한 어떤 천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날이다. 오직 알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날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최후의 날이 언제 오느냐고 물을 것이라 일러 가로되 그것은 나의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것이 언제

---

279) (38:27)

280) (99:7-8)

올지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노라 …】 281)

【종말의 시간은 알라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282)

6. 운명에 관한 믿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알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인간의 상황 하나하나, 언행의 하나하나, 생명의 기간과 운명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283)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은 땅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속에 있는 곡식 한 알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도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284)

281) (7:187)

282) (31:34)

283) (29:62)

284) (6:59). 만약 꾸란에 본 절만 있었다면,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고 결정적인 증명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시대에 걸쳐, 비록 과학이 보편화 된 이 시대에서도, 인간이 오만을 피우면서, 그렇게 할 능력에 관한 문제는 제쳐놓고서라도, 총체적인 주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이 닿을 수 있는데 까지 특별한 환경에 있는 나무한그루 또는 곤충한 마리라도 그것들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서에 기록하신다.

【…실로 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한 장부에 적어두느니라.】 285)

【하늘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그것은 모두 성서에 있으니 실로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286)

알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그것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있어라(Kun)명령하시면 있게 된다(Fa-Yakun).

【실로 그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있노라.】 287)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에 운명과 숙명을 결정해 두셨다.

【실로 나는 운명과 숙명을 두어 모든 것을 창조하노라】 288)

다. 그러나 그 나무나 그 곤충에 갖고 있는 신비한 비밀은 더 위대하다. 총체적인 생각과 총체적인 주위환경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그러한 것들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은 없다.

285) (36:12)

286) (22:70)

287) (36:82)

288) (54:49)

【알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라…】 289)

알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고, 당신에게 거역하는 행위를 금지하셨다. 그 사실도 분명히 밝히셨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여 보상을 받게 하고, 거역할 때는 그것으로 징벌을 받도록 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결정한 운명과 숙명을 믿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얻는다.

1) 어떤 행위에 들어갈 때 알라 하나님께 의존한다. 왜냐하면 결과와 원인이 모두가 알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운명이요 숙명이기 때문이다.

2)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록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운명이요 숙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알라 하나님께서 정한 결과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운명과 숙명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된 편안한 삶을 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목적을 달성할 때 오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성취한 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축복으로부터 온

289) (39:62)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해 알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4) 원했던 것을 놓치게 되고 원하지 않았던 것이 발생할 때 찾아오는 불안, 초조, 슬픔 등을 쉽게 떨쳐버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어느 누구도 그분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결정에 항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숙명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게 되며 그에 따른 알라 하나님의 보상을 얻게 된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라. 실로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이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라. 실로 알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290)

5) 알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된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좋고 나쁜 모든 것이 알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슬림은 인간의 그 어떤 권력이나 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예언자가 이븐 압바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사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당신을 유익하게 하려할

---

290) (57:22-23). Al-'aqidah Al-Sahihah wa Ma Yudadduah, p.19; 'Aqidah Ahl Al-Sunnah wal-Jama'ah, p.39; Din Al-Haqq, p.18.

지 모르지만 알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당신을 유익하게 할 수 없으며, 이 세상사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당신을 해치려 할지 모르지만 알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291)

291) Ahmad fi Musnadihi vol.1, p.293; Al-Tirmizi fi Sunanihi fi Abwab Al-Qiyamah vol.4, p.76.

제 3 단계 : 진실한 마음과 성실

제 3단계의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행동에 의한 온전한 신앙생활(Ihsan)이다. 알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내가 지금 그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을 보지 못한 상태라면 그분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반드시 이 자세로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나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질 때 인간은 알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존경하게 되며 보다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행동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인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 지금 내가 그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께서 나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의 모든 비밀과 나의 모든 공개적 활동과 그 밖의 모든 숨겨진 것들을 감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292]

이 경지에 도달한 인간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사람들의 칭찬도 기대하지 않고

---

292) Jami'u Al-'ulum wal-Hikam, p.128.

사람들의 비난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에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히 기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혼자 있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는 혼자 있어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주님만을 경배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머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의 사지가 조물주 알라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왜냐하면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신앙생활 외에는 그의 사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는 그분 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한 것은 알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그에게는 그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곳에서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만이 도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알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떠한 명령도 방심하지 않고 또 그분께서 금지한 어떤 것도 가까이 하려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 앞에서 수줍어하고 그분의 명령을 놓치기를 싫어하며 그분이 금지한 것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타인을 억압하거나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분께서 그를 불러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이 알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들은 모두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모든 재물 중에서 그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그것을 얻도록 하여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한다.

* * * *

이 책자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과 제시한 모든 것들은 이슬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슬람의 구조에서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기본 원리들을 믿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슬람은 종교이면서 현실이다. 신앙이면서 생활이다. 이슬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정치와 치안,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인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완벽하고 포괄적인 총체적 신성 규범이다.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근본원리, 규범과 제도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새들과 동물,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 그 안에 있다. 인간의 실상,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정립 및 거래에 관한 최선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293)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294)]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 되나니 공정하게 처신하라. 그것이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295)]

지금까지 이슬람교의 단계와 각 단계의 근본원리를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슬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미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93) (2:83)

294) (3:134)

295) (5:8)

이슬람의 미덕[296)]

이슬람의 미덕은 말과 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슬람교의 미덕을 묘사할 충분한 표현력이 적어 유감이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알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의 눈이 알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인간의 지식이 그분의 세계를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말과 글로써 그분의 법을 묘사할 수 없는 이유다. 이븐 까임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진리의 종교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철학을 들여다보라. 인간을 위한 순수한 믿음과 신법을 완벽하게 묘사할 표현이 없다. 그 표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미덕도 그와 마찬가지다. 가장 훌륭한 현자도, 비록 모든 현자들이 모두 모인다 해도, 또 그들 중에 완벽한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있다 해도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할 수 없다.

이슬람의 미덕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크게 존경받는 가장 지적인 존재에 의해 감지되고 입증되기 때문이다. 만일 사도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관한 어떤 증거나 증표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세상은 이처럼 훌륭하고 완벽한 법을 알지

---

296) Shaikh Abd Al-Rahman Al-Sa'di, Al-Durrat Al-Mukhtasarah fi Mahasin Al-Din Al-Islami 및 Abdulaziz Al-Salman, Mahasin Al-Islam 참조.

못했을 것이다. 완벽한 철학과 광활한 자비, 정의와 온전한 신앙, 가시계와 불가시계, 태초의 시작과 종말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간을 이 종교로 안내하여 이 종교의 구성원이 되게 한 이 축복보다 더 위대한 것은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께서 인간을 그 축복으로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키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 중에서 한 사도를 보내 그분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세제하며 성서를 주고 지혜를 가르치게 하셨노라. 당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느니라.】 297)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인간에게 밝히시면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따르도록 촉구하신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노라…】 298)

다음은 이 종교를 내려주신 알라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슬람의 미덕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

297) (3:164)

298) (5:3), Miftah Dar Al-Sa'adah vol.1, p.374-375.

1.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의 종교

이슬람 종교는 알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시어 제정하신 것으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 보내시면서 그것으로 당신을 경배하도록 하셨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교인 이슬람과 피조물의 종교 또는 인간의 종교와도 비교되지 않는다. 알라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교는 속세에서의 인간의 삶을 개선하여 내세의 영생으로 지향하는 완벽한 신법을 제공하고 있다. 창조주의 모든 권리와 그분에 대한 피조물의 모든 의무사항과, 인간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까지 담고 있다.

2. 이슬람은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종교

이 종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미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모든 면을 보살피고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라는 점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성서에 빠뜨리지 아니했노라…】 299)

이 종교는 창조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알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권리들,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하여 인간들이 지켜야 할 법과 의무사항, 도덕과 윤리와 예절, 상호관계 등을 총 망라하고 있다. 전 세대와 후 세대들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

299) (6:38)

늘과 땅, 우주의 궤도, 별들, 바다, 나무, 우주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종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천국과 신앙인들의 최후 거주지, 그리고 불지옥과 불신자들의 종말을 다루고 있다.

3. 이슬람은 인간과 창조주를 직접 연계시키는 종교

모든 거짓 종교와 사이비 교리는 죽음, 허약, 무능력, 질병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을 연계시키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종교는 수백 년 전에 사망하여 뼈와 흙만 남았을까 하는 인간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인간과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는 신부도 없고, 목사도 없고, 어떤 신성의 비밀도 없다. 창조주와 인간과의 직접적인 연결, 즉 인간의 마음과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받고, 안내를 받고, 숭고함을 맛본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원을 간구한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인간을 형이하학적인 상태에서 형이상학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 마음이 주님과 연계되지 않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창조주가 원하는 것을 알아 인간의 지식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피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와 허약하고 부족한 인간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분에게 도움과 원조를 청하고 성공을 간구한다. 사악한 자들의 권모술수와 사탄의 장난과 유혹으로부터 보

호하여 달라고 빈다.

4.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

이슬람법은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과 예절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내세의 행복추구에 관하여 이슬람 종교는 하나도 빠뜨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밝혔다. 모를 것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내세의 행복을 약속하면서 징벌을 경고하고 있다.

현세의 행복을 위하여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를 통하여 생명과 재산과 자손과 명예와 정신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다.

이슬람은 윤리와 도덕과 예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도덕을 강조하면서 형이하학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모범이 되는 외적인 도덕의 항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이슬람은 향수 사용과 외모의 아름다움도 권장한다. 그러나 추잡하고 외설적인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한다. 간음과 간통, 성추행과 성폭행을 비롯하여 음주행위,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섭취 등은 금지하면서 유익하고 합법적인 것만을 취하도록 권장한다. 이슬람은 낭비와 사치도 금지한다.

내적인 윤리와 도덕을 위해 이슬람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는 금지하고 바람직스러운 행위는 장려한다. 금지된 행위로는 거짓, 성범죄, 분노, 질투, 인색, 자신에 대한 천대, 명성에 대한 애착과 물욕, 오만과 거만, 위선 등이 있다. 권장하는 품행으로는 교양을 겸비한 품성,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와 타인에 대한 친절, 공정성 유지, 겸손과 겸허, 정의와 진실, 아

량과 관대, 알라 하나님에게의 위탁, 신앙생활의 진실성과 성실성, 알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인내와 감사 등이다.[300)]

5. 이슬람은 쉽고 편안한 종교

이슬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쉽고 편안한 종교라는 점이다. 모든 예배의식의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노라…】[301)]

첫 번째로 쉬운 점은 이슬람 입교과정에서 인간의 중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절차란 단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La ilaha illa Allah, wa Muhammad Rasulullah)라고 증언하고 이 두 문장의 의미와 이 문장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예배생활 역시 쉬운 것은 물론이고 여행자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쉬운 예배의 짐까지 덜어준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정에 있을 때 혹은 건강할 때 예배하여 얻는 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 무슬림의 생활은 편안하고 평온하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생활은 그렇지가 못하다. 불안하고 괴로울 때가 더 많다. 무슬림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몸에서 영혼이 나가는 것은 마치 주전자에서 미량의 물방울이 떨

300) Al-Qurtubi, Al-I'lam bima fi Din Al-Nasara min Al-Fasad wal-Awuham, pp.442-445.

301) (22:78)

어지는 것과 같다.

【천사들이 선량한 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는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으소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소서. 이것은 당신들이 현세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라고 말할 것이라.】[302)]

불신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무섭고 흉물스럽고 거친 천사들이 그들을 때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한다.

【…그대는 그 사악한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펼치며, 너희의 영혼을 포기하라. 오늘 너희는 굴욕의 수치스러운 징벌을 맛볼 것이라. 너희가 알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꾸며대고 그분의 말씀에 거만을 피웠기 때문이라.】[303)]

【보라! 천사들이 불신자들의 얼굴과 등을 치며 그들의 영혼을 앗아가면서 말하노라. 지글거리는 징벌의 맛을 보라.】[304)]

6. 이슬람은 공정한 종교

이슬람법을 제정하신 분은 알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흑인과 백인,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그분의 법과 정의와 자비 앞에서 평등하다.

302) (16:32)
303) (6:93)
304) (8:50)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적합한 법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이슬람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남성위주로 되어있다거나, 남성에게 불리하게 여성에게 특권을 주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슬람은 백인에게는 허용하면서 흑인에게는 불허하는 법이 아니다. 알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나 신앙심의 정도에 따라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

7. 이슬람은 선행을 권장하고 불법을 감시하며 악행을 금지하는 종교

이슬람 종교는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을 권장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며 악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고 이성이 들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남녀 무슬림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행을 권장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며 악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악행을 예방하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 손으로 권장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손으로 안되면 입으로 하고, 입으로 안되면 마음으로라도 해야 한다. 무슬림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권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악행을 감시하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해야 할 사항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그것의 실천을 촉구하고, 나쁜 일에 빠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한다. 통치자와 백성을 막론하고 무슬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람법의 규범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선행을 촉구하고 악행을 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이슬람

의 권장제도와 감시기능 제도를, 국가의 업무와 공식적 활동을 감시하는 기회를 야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떠들어대는 현대 정치제도와 비교해보라.

위에 언급한 것들은 이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몇 가지에 불과하다. 필자가 보다 많은 장점들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종교의식에서, 또는 이슬람의 의무사항에서, 또는 선행의 권장사항과 불법행위의 감시사항 등 어떤 한 부분에서 글쓰기를 멈추어야 했을 것이다. 각 장이 담고 있는 철학과 의의를 설명해야 하고, 의식절차를 소개해야 하고, 장점을 언급해야 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종교의 규범들을 곰곰이 생각해본 사람이면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요 정의요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확신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그분의 법을 준수하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길을 따라야 한다. 회개의 문은 만인에게 열려있다. 주님은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

* * * *

회 개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실수한 자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305)

인간은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다. 목적이나 결심에서도 약하다. 그가 저지른 죄나 실수의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인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회개의 문을 두셨다. 진정한 회개란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쁜 짓을 단념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행한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후 자신의 여생을 선행에 바치는 것이다.306)

회개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행위이다. 그것은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니다. 단지 마음의 행위이다. 나쁜 일을 단념하는 마음,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행위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쁜 행위들을 단념하고 자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요 행복이다.307)

---

305) Ahmad fi Musnadihi vol3., p.198; Al-Timizi fi Sunanihi fi Abwab Siffah Al-Qiymah vol.4, p.49; Ibn Majah fi Kitab Al-Zahd vol.4, p.491.

306) Al-Mufradat fi Garib Al-Quran, p.76 요약.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인간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는 나와 주님과의 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께 용서를 빌고 안내를 간구하면 그분께서 용서하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유전으로 상속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는 인간 구세주도 없다. 유대교 신자였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오스트리아인 무함마드 아사드는 이렇게 말했다.

"꾸란 어느 곳에서도 인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슬람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유전으로 상속된다는 것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죄는 각 개인의 문제요 각 개인의 운명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한 좋고 나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노라.】 308)

이슬람은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거나 회개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309)

【짐을 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며】 310)

회개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의미와 유익한 결과를 안겨준다.

---

307) Ibn Al-Qayim, Al-Fawaid, p.116.

308) (53:39)

309) Muhammad Asad, Road to Islam, p.140 요약.

310) (53:38)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1.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는 알라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가 얼마나 넓고 깊은 가를 알게 된다. 만일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죄의 대가로 인간을 서둘러 벌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맛보게 하여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분께서는 당신의 아량으로 인간의 잘못을 감추어주시고, 당신의 관용으로 덮어두시며, 당신의 힘으로 용기를 주시며, 당신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2.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죄에 물들기 쉽고, 실수하기고 쉽고, 잘못하기 쉽고, 소홀하기 쉽고, 금지된 것들로부터 쉽게 멀리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이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 순간도 알라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회개하면 그분께서는 정화시켜주시고 안내하여 주신다.

3. 알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두시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되도록 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그분에게 귀의하고 도움을 간구하게 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소원을 빌며, 그것으로 간청하고, 그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 알라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은 오직 회개와 그분에게 돌아가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특별한 길이다.

4. 알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

셨다.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이 불신을 단념한다면 그들의 과거가 용서 되리라 …】[311)]

5. 회개는 인간의 과오를 선으로 대체하여 준다고 하셨다.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선행으로 교체하여 주시거늘 알라 하나님은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니라.】[312)]

6.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들의 나쁜 행위와 죄에 대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대하여 주기를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보상과 대가는 행위의 형태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매너로 다른 사람을 대한 사람은 그가 보인 좋은 매너같이 그도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에 따라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쁜 행위와 죄를 개의치 않고, 마치 그가 그의 동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관용을 베푸실 것이다.

7.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자신도 실수와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오점과 결점을 흉보지 않고 말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오점과 결점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생각하게 만

311) (8:38)

312) (25:70)

들어준다.313) 한 남자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한 말을 소개하면서 본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알라 하나님의 사도여, 저에게 남은 것은 제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사도는 그에게 똑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었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았소?〕

그는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다 그렇게 하였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도가 다시 말했다.

〔당신의 증언이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였소.〕 314) 다른 전언에 의하며, 그 남자가 예언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알라 하나님을 경배함에 그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고 작은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한다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언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저는 증언합니다."

예언자가 말했다.

---

313) Miftah Al-Sa'adah vol.1, p.358, 370.

314) Abu Ya'ola fi Musnadihi vol.6, p.100; Al-Tabarani fi Al-Mu'ojam Al-Awsat vol.7, p.132; Al-Sagir vol.2, p.201; Al-Diyaau fi Al-Mukhtarah vol.5, p.151-152.

〔그래요.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삼가 하시오. 그리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좋은 것으로 만드시어 당신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저의 방탕한 생활과 배신행위도 말입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 남자는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다.

"알라후 아크바르(알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는 이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사라져갔다.[315)]

이슬람은 지난 과거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한다. 또한 예언자로부터 전해온 정통한 전언에 따르면 진실한 회개는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지워준다.

* * * *

---

315) Ibn Abi 'asim fi Al-Aahad wal-Mathani vol.5, p.188; Al-Tabarani fi Al-Kabir vol.7, p.53, 314; Qala Al-Haithami fi Al-Mujtam' vol.1, p.32.

알라 하나님을 거절한 자의 말로

본서에서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의 종교이며, 진리의 종교이며,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파한 종교이며, 알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서 위대한 보상을, 그리고 이것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경고한 종교라는 것을 밝혔다.

알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해 다른 피조물을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라 하셨다. 그리고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께서 금기한 모든 것을 삼가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약속한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얻을 것이요 현세에서도 그분께서 베푼 모든 종류의 은혜를 만끽하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예언자와 사도들의 품성과 의인들의 예절과 천사들의 속성을 닮아 가장 훌륭한 현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를 불신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 세상도 잃고 저 세상도 잃게 된다. 현세와 내세에서 그분의 노여움을 살 것이요 가혹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가장 비참하고 가

장 사악한 피조물이 될 것이다. 가장 멍청한 자가 될 것이요 가장 저질스러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부패한 자가 될 것이요 거짓의 사신이 될 것이다.

1. 두려움과 불안한 삶이 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현세와 내세에서 완전한 평안을 약속하셨다.

【유일신을 믿고 믿음을 불의와 혼합하지 아니한 자들만이 평온을 얻고 바른 길로 인도 되느니라.】 316)

알라 하나님은 평온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피조물들을 감시하는 분이시며, 우주만물의 소유자이시다. 알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종을 사랑하사 그에게 평온과 안정과 평화를 내려주신다. 그러나 당신을 불신하는 자로부터는 평온과 안정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한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알라 하나님에 대한 신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시장이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다.

2. 궁핍한 삶이 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주에 있는 당신의 모

---

316) (6:82)

든 피조물에게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각각의 피조물이 일용할 양식을 할당하시고 생명의 기간을 두셨다. 양식을 찾아 둥지에서 나와 먹을 것을 구하는 새들이 있다.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면서 아름다운 선유로 지저귄다. 인간도 이러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인간에게도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배정하셨고 생명의 기간을 두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법을 굳게 준수한다면 그분께서는 그에게 행복과 안정을 주실 것이며, 비록 그가 최소한의 생계수단 이상의 것은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그의 모든 일을 편하고 쉽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불신하고 오만과 거만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이다. 비록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하여도,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분은 그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 것이요, 슬프고 고생스럽게 만들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복지수단이 다양한 나라들의 실태를 보라. 소위 복지국가라고 자칭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통계 숫자가 얼마나 높은가!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최고급 가구들과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평온하고 행복한가! 이렇듯 사치를 유도하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긴장과 초조함에서 벗어나보고 싶고 근심과 불안을 털어버리고 싶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경고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부활의 날 나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라】 317)

3. 자신과의 싸움과 주변 우주와 싸우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일위일체의 알라 하나님 본성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위일체 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318)

인간의 육신은 주님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불신자는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주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 즉 그의 몸은 창조주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

그는 또 주변의 우주와도 지속적인 분쟁관계에 있게 된다. 가장 큰 은하계에서부터 가장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알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운행되기 때문이다.

【그런 후 그분은 스스로 수증기로 가득한 하늘로 오르시며 하늘과 땅에 이르시기를, 좋든 싫든 간에 너희는 함께 오라 명령하셨더라. 그러자 하늘과 땅이 대답하기를,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319)

---

317) (20:124)

318) (30:30)

319) (41:11)

그런데 우주는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고 우주의 섭리를 거슬리는 자를 싫어한다. 불신자는 이 우주의 섭리와 조화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즉 주님에게 거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는 이 우주의 섭리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이 불신자를 싫어하고 그의 불신과 무신론적 행위를 싫어하는 이유다.

【자비로우신 알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노라. 실로 너희는 불결한 주장을 하노라. 그때 하늘이 찢어지려하고 대지가 갈라지며 산들이 산산 조각이 되노라. 이는 그들이 알라 하나님께 자손이 있다고 불결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 알라 하나님은 자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써 알라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 320)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다.

【하늘도 땅도 그들을 위해 울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잠시도 유예되지 아니했노라】 321)

4. 무지한 삶이 될 것이다.

불신은 바로 무지다. 아니 가장 큰 무지라고 하는 편이 더 나

---

320) (19:88-93)

321) (44:29)

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주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이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이 우주를 보고 있다. 스스로 알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고 있다.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보다 더 큰 무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5. 스스로를 우롱하는 삶이 될 것이다.

불신자는 그가 창조된 목적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를 창조한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가 세운 사신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제 자리가 아닌 곳에 두는 것은 그것을 우롱하는 것이다. 즉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은 경배의 유일한 대상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그것은 가장 큰 죄다. 현자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다.

【…아들아 알라 하나님께 비유하여 사신을 섬기지 말라. 실로 사신을 섬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죄악이니라.】 322)

그러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죄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홀로 경배 받아야 할 분의 권리를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롱을 당한 사람이나 동물은 부활의 날 우롱한 당사자 앞에 서서 우롱한 자를 응징하여 줄 것을 알라 하나님께 요구한다.

---

322) (31:13)

6.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분노에 노출시킬 것이다.

불신은 재앙과 재난을 유발시키고 알라 하나님의 징벌을 서둘러 초래한다.

【사악함을 음모한 저들이 평안하려 하느뇨.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 대지로 하여금 저들을 삼키도록 하리라 또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징벌이 그들을 덮치도록 하리라. 저들의 여행 중에 저들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저들은 피할 수 없으며 점차적으로 두렵게 하여 저들을 멸망케 하리라. 실로 주님은 관대하시며 자비로우시니라.】 323)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괴롭힐 것이라. 또한 그들의 주거지 가까이에 재앙이 끊이지 않게 하리라. 실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노라】 324)

【혹은 오락을 즐기는 밝은 낮에 그들에게 도래할 알라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 그 고을 백성들은 안전하겠느뇨?】 325)

이것이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의 운명이다. 다음은 불신자들의 민족과 국가들에게 징벌이 내려졌다는 꾸란의 소식이다.

---

323) (16:45-47)

324) (13:31)

325) (7:98)

【나는 그들 각자의 죄악에 따라 징벌을 내렸노라. 그들 중에는 돌 폭풍우로 벌을 받은 백성이 있었고 큰 벼락을 맞은 백성도 있었노라. 또한 나는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켜버리도록 하였고 또 물에 익사하게도 하였노라. 이것은 곧 알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뿐이라.】 326)

7. 실패하고 크게 손해 보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을 우롱한 이유 때문이다. 그는 마음과 영혼이 알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평온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잃게 된다. 그는 세상도 잃게 된다. 평온이 없는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재물 축적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된다. 재물과 물질도 각각 쓰이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제 목적에 쓰이는 재물이 아닐 때는 그 재물의 효력이 없으므로 현세에서도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쓰일 곳에 사용되어야 할 재물이 다른 곳에 사용될 때 결국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비참한 죽음을 맛보며,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된다.

【저울 눈금이 가벼운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 그것은 나의 말씀과 징표들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327)

---

326) (29:40)

327) (7:9)

그는 가족들도 잃게 된다. 알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자신처럼 고달프고 비참하게 되어 불지옥으로 가는 운명을 마지할 것이다.

【…실로 잃은 자들이란 심판의 날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잃을 것이라…】 328)

부활의 날 그들은 불지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불의를 행한 자들과 저들의 아내들과 저들이 숭배했던 것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알라 하나님 외에 숭배한 것들을 모아 불지옥으로 안내하라】 329)

8. 알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분의 은총을 거절하는 바보가 될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무(無)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을 제쳐놓고 사신을 숭배하고 그것에 매달리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보다 더 큰 무례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보다 다 가증스러운 행위가 있단 말인가!

---

328) (39:15), (42:45)

329) (37:22-23)

9. 불신자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

삶의 가치는 주님을 믿고, 자신의 목표는 무엇이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의 부활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은 각자의 권리와 임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자가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요 내세에서 영원한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라…】 330)

【…에덴의 천국에 아름다운 거주지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승리라】 331)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사는 목적과 운명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먹고 마시고 잠자기 위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는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오히려 동물들보다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지옥을 두매 많은 영마와 사람을 위해서라. 그들은 마음이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

330) (16:97)

331) (61:12)

있으나 듣지 못하니 짐승과 같더라. 실로 그들은 방황하는 자들이요 무관심한 자들이라.】 332)

【그대는 저들 대다수가 듣고 또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뇨? 실로 저들은 가축들과 다를 바 없나니 저들은 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느니라.】 333)

10. 불신자는 연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 것이라.

불신자는 한 가지 고통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이 고통 저 고통을 맛보게 된다.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불행을 맛본 후 저 세상으로 간다. 저 세상으로 가는 첫번째 단계는 고통을 가하는 천사들이 내려와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징벌을 그에게 내리고 나면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온다.

【보라! 천사들이 불신자들의 얼굴과 등을 치며 그들의 영혼을 앗아가느니라 …】 334)

그리고 나면 영혼은 그의 몸을 떠나고 그의 시체는 무덤에 묻혀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된다.

【불길이 아침저녁으로 저들을 에워싸노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파라오의 백성들을 최악의 징벌로 들게 하라는 언도가 내

332) (7:179)

333) (25:44)

334) (8:50)

려지노라】[335)]

부활의 날이 되면 피조물들이 부활되고 그들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드러난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언급한 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업적을 보게 된다.

【행위의 기록이 제시될 때, 이 기록이 도대체 무엇이뇨 작은 일도 큰 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부다 기록되어 있으니라고 저들은 말하면서 기록된 것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그대가 보게 되리라…】[336)]

이때 불신자들은 차라리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으면 하고 바란다.

【…그날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행한 것들을 지켜보는 날이며 불신자들은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다니 차라리 흙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탄식할 것이라.】[337)]

그 날의 공포 때문에 인간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으로 그 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

335) (40:46)

336) (18:49)

337) (78-40)

【죄지은 자들이 대지에 있는 모든 것과 그와 유사한 모든 것으로 심판의 벌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338)

【비록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안다하여도 그러할 것이며 그 날 죄인들은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자손이나 그의 아내와 형제나 그를 보호한 친척이나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징벌을 피하려 할 것이라.】 339)

내세는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곳이지 희망을 갖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세에서 선행을 쌓았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날 불신자가 받게 될 가장 가혹하고 참혹한 징벌은 바로 불지옥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서로 다른 온갖 종류의 징벌을 준비하여 두셨다.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된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부인한 지옥이라. 그들은 들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방황하게 되느니라.】 340)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입을 옷도 소개되고 있다.

【…불신자들은 불길에 옷이 찢기고 머리 위에는 이글대는 물이 부어지리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내장과 피부도 녹아내릴 것이라.】 341)

* * * *

---

338) (39:47)

339) (70:11-14)

340) (55:43-44)

341) (22:19-21)

결 론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은 존재하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아니했을 때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느뇨?】 342)

그 이후부터 남자의 미세한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혼합하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청각과 시각을 주셨다.

【인간에 관하여 언급할 만한 가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기간이 있었지 않았더냐? 실로 나는 혼합된 한 방울의 정액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여 시험코자 하였으니 그리하여 나는 인간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였노라.】 343)

창조된 인간은 허약한 상태에서 차츰차츰 튼튼해졌다가 다시 허약한 상태로 돌아간다.

---

342) (19:67)

343) (76:1-2)

【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창조하신 후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알라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 하시니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라.】 344)

그리고 현세에서 인생의 종점은 죽음이다. 이렇듯 인간은 허약한 단계에서 출발하여 강한 상태를 거쳐 다시 허약한 상태로 돌아간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사악함을 모두 차단할 수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힘과 양식 같은 그분의 은총으로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이 많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길 때가 있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도 많다. 그래서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도 많다.

희망을 저버리게 하고,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시련과 재앙을 안겨주는 일도 많다. 그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피하고 싶어 한다. 때로는 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가!

【사람들이여 너희는 알라 하나님을 필요로 한 가난한 자들이라. 알라 하나님은 풍요함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아

344) (30:54)

야할 분이시라.】 345)

인간은 두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아주 미약한 바이러스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예방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역시 허약한 인간을 찾는다. 때로는 진료와 약의 효과로 건강이 회복되지만, 때로는 의사도 병을 치료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이럴 때면 환자와 의사는 당황하게 된다.

인간은 얼마나 허약한 피조물인가! 파리 한 마리가 인간의 몸에서 무엇인가를 물어가도 그것을 되찾아 올 수 없는 허약한 때가 있었고, 또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여 비유로서 말하노니 귀를 기울이라. 실로 너희가 알라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들은 그것들이 온 힘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파리 한 마리도 창조하지 못하며 그 파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간다 해도 그것들은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구하지 못하니라. 실로 숭배자와 우상은 허약할 뿐이라.】 346)

파리 한 마리가 가져간 것을 되찾아 올 수 없는 허약한 때를 맞이한 인간은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일을 알라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한다. 자신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그분의 두 손가락 사이에 있다. 그분의 두 손가락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신다. 삶과 죽음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인간의

345) (35:15)

346) (22:73)

언행도 모두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그분의 뜻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맡기면 더욱 허약하게 되고, 태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 타인에게 맡겨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유익함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생명도 주지 못하고 죽음과 부활도 관장하지 못한다. 인간은 한 순간도 알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수 없다. 인간은 살아 있는 한 알게 모르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면에서 그리고 매순간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불신과 죄지음으로 그분의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서도 그분을 망각하고 있다.[347)]

인간은 허약하여 저지른 과오와 죄를 감당할 수 없다.

【인간은 허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노라.】[348)]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서들을 내리시고, 법을 제정하여 앞을 향하여 걸어갈 바른 길을 마련하여 주셨다. 설명을 하여 주셨고 징표들과 증거들도 보이셨다. 당신의 유일성과, 주권자로서의 유일성과, 신성으로서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리를 거짓으로 차단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탄을 친구이자 보호자로 취하고 있다.

---

347) Ibn Al-Qayyim, Al-Fawaid, p. 56.

348) (4:28)

【…인간은 매사에 논쟁하기를 좋아하느니라.】[349)]

인간은 알라 하나님께서 베푼 은총 안에서 활동하고 그 은총을 누리면서 자신의 시작과 종말을 잊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아주 미세한 정자와 난자가 혼합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후 종점인 무덤으로 가서 천국과 불지옥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인간은 내가 한 방울의 정액으로 그를 지어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보라 인간은 드러난 논쟁자라. 인간은 나와 유사한 것을 지어내며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기를, 썩어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라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소생시킬 것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종류의 것을 창조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350)]

【인간들이여 무엇이 너희의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느뇨? 너희를 창조하고 완벽한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이뇨? 그분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너희의 형상을 지으셨노라.】[351)]

인간은 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분에게 간청하는 기쁨을 마다하는가! 가난한 자는 부유

---

349) (18:54)

350) (36:77-79)

351) (82:6-8)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병자는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며, 슬픈 자는 슬픔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죄 지은 자는 그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해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막아 주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면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혼란에 빠지거나 방황하게 되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배우고 싶어하면 지식을 주실 것이요, 불안하면 안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허약하면 자비를 베풀어주실 것이요, 공격하는 적이 있으면 물리쳐 주실 것이며 양식을 원하면 그것을 주실 것이다.[352]

알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은총인 이슬람을 주신 후에 지식과 지혜의 은총을 주셨다. 그것으로 유익하고 해가 되는 것을 가리도록 하셨다. 그것으로 알라 하나님의 명령과 금기사항을 알도록 하셨다. 그것으로 최상의 목적인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 외에 어떤 형태의 신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너희가 도움을 청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괴로움을 덜어주시니라, 보라! 너희 가운데 무리는 주님에 빗대어 사신을 세우기 시작하느니라.】[353]

현명한 인간은 고차원의 것을 사랑하고 저질스러운 것은 혐오한다. 비록 예언자들이나 의인들의 위상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현명한 인간은 그분들의 훌륭함과 자비를 본받아 그분들과 합류하기를 원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그 곳에 이르는 유

352) Miftah Dar Al-Sa'adah vol.1, p.201.

353) (16:53-54)

일한 길을 제시하셨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알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라…】354)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실천한다면 알라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사도, 순교자와 의인의 대열에 합류시켜주실 것이다.

【누구든 알라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는 자는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축복을 주시는 예언자들과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정직한 사람들의 대열에 두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동반자가 되리라】355)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창조주께서 보내주신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입증하는 증표들과 증거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서둘러 그 진리를 따라야 한다. 진리에서 벗어난 관습과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영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친구보다 소중하고 선조들의 전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충고하면서 진리로 초대하고 계신다.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충고하나니 너

354) (3:31)
355) (4:69)

희는 두 명씩 또는 한 명씩 알라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라. 너희의 동료는 마술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는 단지 무서운 징벌이 절박하였음을 너희에게 경고하는 사람일 뿐이라.】 356)

이슬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잃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알라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알라 하나님이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푼다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손실이 있겠느뇨? 알라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니라.】 357)

이브누 까씨르는 이렇게 말했다.

"알라 하나님을 믿고 영광의 길을 따른다고 해서 피해보는 것이 있는가? 선을 실천한 자를 위해 약속된 내세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알라 하나님을 믿으시오.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푼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공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성공을 안겨주시고 축복의 길로 안내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누가 굴욕과 치욕을 받을 자이며, 누가 당신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추방당할 자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집 천국의 문으로부터 추방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며 누가 실패한 자이고 누가 현세와 내세에서 손해를 볼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358)

---

356) (34:46)

357) (4:39)

358) Ibn Kathir, Tafsir Al-Quran Al-'azim vol.1, p.497.

이슬람은 중재자가 필요 없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종교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재자 없이 알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 중에서 가질 수 있다. 선행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보상이 따른다. 그 선행이, 비록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 재물의 증식을 위한 일, 또는 명성과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상이 따른다. 허용된 합법적인 것은 불법적인 곳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록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이 따른다.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일종의 자선 행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교우들이 질문을 하였다.

"알라 하나님의 사도여, 저희 중에 한 동료가 성욕을 충족시켰습니다. 그에게도 보상이 있습니까?"

사도가 대답했다.

〔말해보시오. 만일 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그는 그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그는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359)

이미 사도들께서 진리를 소개하였고 알라 하나님의 목적을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법을 아는 일만 남았다. 확실한 지식을 갖고 현세의 삶을 살아갈 때 내세에 가서 성공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여 사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갖고 오셨으니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

---

359) Muslim. 본서 .... 쪽 참조.

라.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느뇨? 천지의 삼라만상이 알라 하나님의 것이라. 알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현명한 분이시니라.】 360)

【일러 가로되 인간들이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진리가 도래하노라.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요 이탈하는 자 있다면 그는 방황하는 자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361)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슬람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뿐이다. 창조주 알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배반자가 그분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고 복종하는 자가 그분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한다. 당신의 예언자께서 전했던 것처럼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들이여! 내가 나에 대한 억압을 금지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도 금지하였으니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지 말라.

나의 종들이여! 내가 인도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너희 모두가 방황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나로부터 양식을 수여받은 자 외에는 너희 모두가 굶주릴 자들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양식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나로부터 입을 옷을 수여받은 자 외에는 너

360) (4:70)

361) (10:108)

희 모두가 벌거벗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입을 옷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입을 옷을 줄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가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으되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두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 모두가 나를 해치려하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너희가 해를 입을 것이라. 나를 이롭게 하려하여도 나를 이롭지 하게 못할 것이라. 너희가 나로부터 이로움을 받을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 가운데 처음 온 자와 가장 나중에 온 자와 인간과 영마 모두가 가장 경건한 자처럼 경건한 마음이라 하여도 나의 왕국에 더하여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 가운데 처음 온 자와 가장 나중에 온 자와 인간과 영마 모두가 가장 사악한 사람처럼 사악한 마음이라 하여도 나의 왕국을 조금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 가운데 처음 온 자와 가장 나중에 온 자와 인간과 영마 모두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 나에게 구원을 청한다하여도 나는 각자에게 그가 요구한 것을 주나 나에게는 아무 것도 감소된 것이 없으니 그것은 마치 바늘을 바닷물에 넣었다가 들어냈을 경우보다 감소되는 것이 없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실로 내가 너희를 위해 계산하는 것은 너희의 업적이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상하나니 내세에서 상을 받을 자는 알라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요 그 외의 것을 받을 자는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비난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362)

---

362) Muslim fi Kitab Al-Birri wa Al-Sillah, Chapter Tahrim Al-Zulmi, Hadith 2577.

모든 영광을 온 누리의 주님이신 알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훌륭한 사도이자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가문과 그의 교우들 모두의 명복을 빈다.

찾아보기

1) ㄱ

2) ㄴ

3) ㄷ

7) ㅅ

8) **ㅇ**

9) ㅈ

10) ㅊ

11) ㅋ

12) ㅌ

13) ㅍ

14) ㅎ

تابع : المحتويات

تابع : المحتويات

المحتويات

٢٢٧
١٨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الإسلام

أصوله ومبادئه

تأليف :
د. محمد بن عبدالله السحيم

المكتب التعاوني للدعوة والارشاد وتوعية الجاليات بالبديعة
تحت اشراف وزارة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 الاوقاف والدعوة و الارشاد
ص.ب ٢٤٩٣٢ الرياض ١١٤٥٦- هاتف ٤٣٣٠٨٨٨ - فاكس ٤٣٠١١٢٢